

# 18세기 지식인 유만주(兪晩柱)의 『역어유해(譯語類解)』 읽기와 재구성

김하라\*

- I. 서론
- II. 유만주의 『역어유해』(譯語類解) 읽기와  
『속어명물해』(俗語名物解) 쓰기
- III. 『속어명물해』의 체재와 표기법이 갖는 의미

## <국문초록>

18세기 후반 서울에 거주한 20대의 양반 남성 유만주는 『역어유해』(譯語類解)를 저본으로 삼아 『속어명물해』(俗語名物解)라는 어휘집을 만들었다. 이 목록에는 『역어유해』의 하책에 수록된 한어(漢語) 어휘 2,066건 중 392건이 선별되어 저본과는 다른 체재와 표기법에 따라 기재되었다.

유만주는 저본을 재구성하여 I. 화곡(禾穀)·채소(菜蔬)·수목(樹木)·화초(花草)·비금(飛禽)·주수(走獸)·곤충(昆蟲)·수족(水族) II. 진보(珍寶)·직조(織造)·재봉(裁縫)·전농(田農)·기구(器具)·안비(鞍轡)·주선(舟船)·차량(車輛)·잠상(蠶桑) III. 기희(技戲)·쇄설(瑣說)의 순으로 어휘를 분류하고 나열했다. 이와 같은 『속어명물해』의 어휘 배열방식을 통해, 인간의 문화를 크게 유형과 무형의 범주로 나누고, 유형의 문화에 속한 하위개념으로 일상생활과 관련된 동식물 및 도구를, 무형의 문화에 속한 하위개념으로 민속과 언어 등을 설정하고 있는 편자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다.

또한 한어 표제어에 해당하는 고유어 의미를 한글로 표기한 저본과 달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선임연구원

리, 유만주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리거나 한글을 혼용하는 방식으로 고유어를 표기했다. 그는 거의 대부분의 어휘를 한문으로 표기한바 『속어명물해』에서 한글이 사용된 예는 63건에 불과하다. 유만주가 사용한 한글은 그 음가를 한문으로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처럼 고유어 음운을 선별하여 한글로 표기하는 방식은 중국어와 조선어가 음운체계에서 상당히 다르다는 자각과 연결되었다.

『속어명물해』는 18세기 조선의 지식인 유만주의 세계가 어떤 사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는지 추정하는 단서가 된다. 또한 유만주는 이 목록을 만드는 동안 일상의 사물들이 한어와 조선어로 각각 어떻게 불리는지 검토하며 한문과 한글의 이질성을 구체적으로 발견하는 계기를 만났다. 그는 자국의 고유어에 대한 학문적 문제의식을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갔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조선의 사대부 지식인으로서 한문을 전적으로 사용하는 유만주가 역관(譯官)의 수험서인 『역어유해』를 검토하며 얻게 된 효과 중 하나였다.

핵심어: 『역어유해』(譯語類解), 유만주, 『속어명물해』(俗語名物解), 한어(漢語), 한글.

## 1. 서론

유만주(俞晩柱, 1755~1788)의 『흠영』(欽英)은 18세기 후반 조선의 정치와 경제, 의식주의 생활을 포함한 문화, 군중의 심리와 개인의 내면 등 인간간의 삶이 포괄하는 복잡다단한 국면을 대단히 꼼꼼하고 정교하게 기록한 한문일기이다.

특히 이 일기는 서울에 거주하는 사대부 지식인 남성이자, 별다른 직분 없는 독서인인 저자의 처지를 반영하여, 경화세족(京華世族)과 가부장이라는 당대의 정치, 경제 및 문화적 중심부와 일정한 거리를 둔 주변부에서 목도한 18세기 조선의 각종 사상(事象)을 증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유만주가 당시 양반가 여성들의 문자생활을 재현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선의 사대부가 여성들이 대부분 한글을 매체로 한 문자 교양을 체득하고 있었으며 이 점은 경향(京鄕) 및 빈부라는 지역적, 경제적 차이와는 비교적 무관하게 나타나는 현상임을 추론한 바 있다. 여성의 한글 사용에 대해 한문으로 기록한 유만주 자신의 일기에서도, 극히 드물기는 하나 한글을 혼용한 예가 발견되었다. 일종의 원초적 국한문혼용(國漢文混用)이라 표현할 만한 이러한 문체를 단서로 삼아, 모국어인 조선어라든가 다른 계층과 소통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한글이 유만주를 포함한 조선 사대부 남성의 언어적 잠재의식 저변에 잠복해 있다가 문자의 형태로 표출되는 양상을 포착할 수 있었다.<sup>1)</sup>

이 글은 조선 후기 사대부의 어문생활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시야를 확대하여, 한문 사용자인 유만주가 자국어(母語)를 다루며 보여 준 학문적 접근 태도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흙영』에는 기존 논의에서 언급한 몇 가지 사례 외에도 한글 표기가 간혹 보이며, 그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이 『역어유해(譯語類解)』를 읽고 그 어휘를 다시 정리하여 만든 목록이다. 『역어유해』에서 뽑은 어휘의 일부를 수록한 이 목록은, 그 표기나 분류의 방식이 저본과는 사뭇 다르다. 이 선별된 어휘의 내용과 형식을 분석함으로써 개인의 일상을 구성하는 사물의 범위라든가, 개별적 사물의 고유어 이름과의 미에 대한 편자의 인식태도를 추측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 II. 유만주의 『역어유해(譯語類解)』 읽기와 『속어명물해(俗語名物解)』 쓰기

『역어유해』에 대한 유만주의 접근태도를 분석하기에 앞서, 언어의 문제와 관련한 유만주의 처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유만주는 서울에 거주하던 양반 남성인바, 그의 구어는 18세기 서울말로 추정된다. 동아시아 지식인의 공통된 문자언어인 한문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조선 사람인 그는 자국에 고유한 문자가 있다는 뚜렷한 자각을 다음과

1) 김하라, 『통원 유만주의 한글 사용에 대한 일고』, 『국문학연구』 26, 국문학회, 2012.

같이 표명했다.

○중화와 번방(藩邦)을 막론하고, 모두 자기 나라의 글자가 있다. 지금 언문은 바로 우리나라의 글자이다. 우리나라의 글자로 소설을 지은 것이 나라 안에 산 재해 있으니, 모아서 헤아려 본다면 무려 몇만 권이 될 것이며, 그 명목(名目)은 거의 수십백 가지가 될 것이다. 비록 순수하고 잡박함이 가지런하지 않고, 부여 한 의미가 한 가지가 아니지만 요컨대 모두 동쪽 번방의 패관의 글들이라 하겠다. 훗날 예문지(藝文志)를 편찬하는 자는 미천한 언문으로 된 것이라 하여 생략하고 기록해 두지 않아서는 안 된다.<sup>2)</sup>(유만주, 25세)

그런데 한글로 기록된 자국 문헌의 의의를 명시한 이 글을 유만주는 한문으로 썼다. 그는 한문을 능숙히 사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대부 계층의 남성이었다. 한글을 사용하는 여타 계층의 구성원들, 이를테면 사대부가의 여성이나 중인 이하 서민에 속하는 남녀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부가적으로 한글을 습득하고 있긴 했으나, 한글이 그의 문자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했다. 게다가 한문 구사 능력을 바탕으로 과거 시험을 보고 관료가 되는 것으로 진로가 확정된 유만주와 같은 청년에게 한문 공부는 사활을 걸어야 할 업이자 강고한 일상의 일부였다. 이와 같은 자기 계층의 언어적 처지에 대해 그는 일찍부터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언어와 문자는 두 길로 나뉜다.<sup>3)</sup>(유만주, 22세)

자국의 음성언어와 문자언어가 분리된 길을 가고 있다는 이 말은 구어로 조선어를 쓰면서 문어로는 한문을 구사해야 하는 사대부 남성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여기서 언급한 ‘우리나라’의 구성원 중에는 자신의 언어를 한글로 표기하던 계층이 고려되어 있지 않다. 이는 한글을 해득하고 구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는 별개로, 기본적으로 한글이라는 문자를 자신의 언어

2) ○毋論華蕃, 皆有本國之字, 今諺文即東國之字. 以東國之字, 作爲小說, 散在國中, 合而計之, 無慮累萬卷, 其名目幾數十百種. 雖純駁不齊, 托寄非一, 要皆東藩稗官之書也. 後之撰『藝文志』者, 不可以諺文之陋, 略而不錄也.(1779.10.24.)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 인용문이 『홍영』 1779년 10월 24일조에 나온다는 것을 뜻한다. 이하 같다.

3) ○東方言語文字, 分爲二途(1776.6.17)

인식구도 가운데 그다지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았던 유만주 외 사대부 남성의 일반적 상황을 간명히 보여준다. 다음 인용문은 그런 사대부 계층이 처한 언어적 상황을 표현했다.

○『용재총화』에 이런 말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같은 유(類)가 아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글을 읽을 때 음(音)이 있고, 석(釋)이 있고, 구결(口訣)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글을 쉽게 배울 수 없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말하는 바가 모두 문자이고 음이나 석이나 구결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글공부를 하면 쉽게 성취하게 된다.”<sup>4)</sup>(유만주, 27세)

유만주가 일기에 인용한 성현(成俔, 1439~1504)의 말에는 비록 동문(同文)이라고는 하나 중국인과 다른 처지에서 외국어인 한문을 공부해야 하는 조선 사대부 남성의 고충이 잘 표현되어 있다. 이처럼 유만주에게 한문은 자신의 생각을 문자로 표현할 때 가장 익숙하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수단 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좀처럼 자신의 구어와 일치하지 않는 관념적인 언어이자 평생을 두고 연마해야 할 일종의 외국어였다. 평행선을 가고 있는 두 언어 사이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 혹은 두 길을 합칠 방도를 모색하는 것은 가능한지, 이 점이 18세기 후반의 조선을 살아가는 유만주와 같은 사대부 지식인에게 던져진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였을 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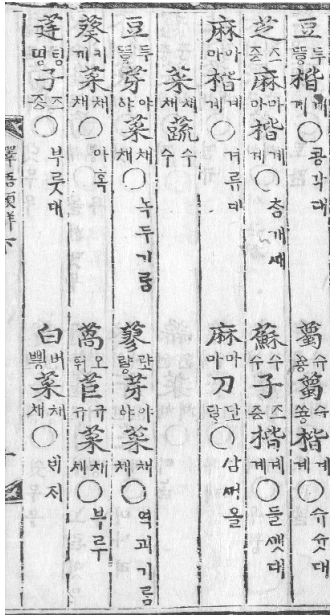
『역어유해』는 한어 표제어와 그에 해당하는 조선어 설명이 일대일로 짝을 이루고 있는 어휘집인바, 유만주는 이 책을 읽으며 자신의 문어와 구어가 맺고 있는 관계를 거듭 환기하게 되었으리라 여겨진다. 본고에서는 유만주가 『역어유해』로부터 추출한 목록을 원래의 『역어유해』와 비교하고 분석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sup>5)</sup>

1781년 7월 1일, 27세의 유만주는 『역어유해』를 보았다고 적은 후 “대체로 이 또한 다스림의 한 부류다”라는 논평을 더했다.<sup>6)</sup> 이 책의 편찬목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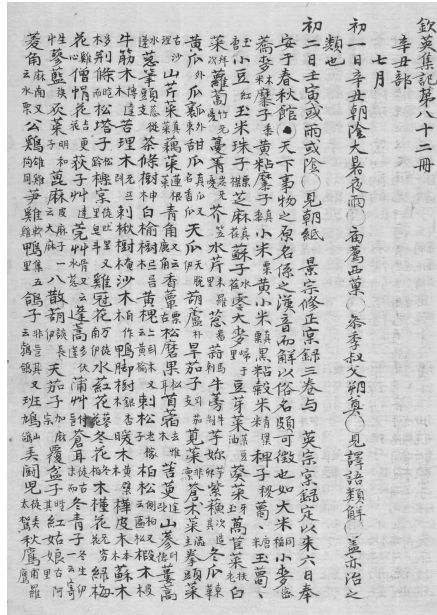
4) ○『慵齋叢話』云: “我國與中朝不類, 我人讀書, 有音有釋有口訣, 故人未易學, 中朝所言皆文字, 無音釋口訣, 故其學易就.(1781.6.15)

5) 본고에서 비교검토의 대상으로 삼은 저본은 『譯語類解; 譯語類解補』(서울대학교규장각, 2005)다.

6) ○見『譯語類解』.○蓋亦治之類也.(1781.7.1)



『역어유해』 「菜蔬」  
(가람古413.1-G418y)



『흠영』 1781년 7월 1일 및 2일 조  
「俗語名物解」

외교를 비롯한 국가정치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이해한 데 따른 말이다. 이튿날인 7월 2일, 그는 자신이 본 내용을 바탕으로 어휘의 목록을 정돈하고 “속어명물해”(俗語名物解)라는 제목을 붙였다.<sup>7)</sup>

제명(題名) 중 ‘속어’(俗語)는 조선의 고유어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 말은 조선의 지식인이 자국어에 대해 기본적으로 지닌 폄하의 시선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곧 살펴보겠지만, 유만주가 『역어유해』를 읽고 목록을 만들면서 자국어를 다루는 태도는 꼭 주도면밀하며 중립적인 것에 가깝다. 다음으로 ‘명물’(名物)은 조선 후기 지식층 일각에 영향력을 끼치던 명물도수학(名物度數學)의 분위기<sup>8)</sup>와 아울러, 사물에 이름을 붙이는 것에 대한

7) 1781년에 해당하는 『흠영』 신축부(辛丑部)의 모두(冒頭)에는 주요 수록내용을 소개한 목차가 첨부되어 있다. 본고에서 언급한 제목은 이 목차에 제시된 바를 따른 것이다.  
8)李建植, 「李圭景의 名物度數之學과 관련된 언어와 문자 자료에 대하여」, 『진단학보』 121, 진단학회, 2014; 김근수, 『한국실학과 명물도수학』, 『정신문화연구』 12, 한국학중앙연구원,

편자의 관심이 반영된 술어다. 유만주는 『역어유해』를 접하기 한 해 전, 조선에 재배되는 일곱 곡식의 명칭을 검토한 적이 있는바,<sup>9)</sup> 『속어명물해』는 편자가 이미 가지고 있던 물명(物名)에 대한 관심이 구체화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본디 『역어유해』는 한어(漢語)에 상응하는 조선어의 음을 한글로 표기한 어휘집으로,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독서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유만주는 이것을 면밀한 ‘읽기’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처럼 ‘사전’을 검색이 아닌 읽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독서취향은 무엇을 말해줄 수 있을까? 이는 우선 유만주가 자국어 어휘의 문제는 물론, 사물의 이름을 지시하는 언어의 속성과 관련하여 예민한 감각을 지니고 있다는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엮은 『속어명물해』의 체제와 표기법을 통해 그의 언어감각에 대한 추론을 확장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이 두 부분을 중심으로 해당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 (1) 화곡(禾穀)

‘화곡’(禾穀)은 『역어유해』의 하책을 구성하는 19개의 분류명 중 하나로 저본에는 여섯 번째에 수록되어 있다. 유만주는 이 분류명에 해당하는 어휘를 가장 윗자리에 배치했는데, 이러한 편차(編次)는 여러 물명 중 곡식의 이름에 대한 편자의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했듯 유만주는 조선의 7곡 명칭을 고찰한 바 있다.

○일곱 가지 곡식의 이름을 고찰했다. 도(稻)에는 나미(糯米)잡(粘) 찰기가 있음과 갱미(粳米)가 있고, 양(粱)에는 청량(靑粱)잡(粘)과 황량(黃粱)·백량(白粱)이 있으며, 서(黍)에는 출미(秫米)잡(粘)은 술 빚기에 좋다와 출축(秫藷)속칭 당미(唐米)이며, 남쪽 사람들은 노제(蘆稬)라 부른다, 옥출(玉秫)이 있고, 직(稷)제(稬)의 다른 이름이다. 서(黍)와 비슷한데 작다 이 있고, 맥(麥)에는 대맥(大麥)가을보리과 소맥(小麥) 밀, 광맥(糠麥)겉보리, 봄, 교맥(蕎麥: 메밀)즉 모밀이 있으며, 숙(菽)에는 대두(大

1982.

9) 『흙영』 1780년 5월 11일조 참조.

豆) 검은콩과 흰콩 2종 · 홍두(紅豆) · 녹두(菘豆)가 있고, 마(麻)에는 호마(湖麻)바로 검은참깨인데 잎의 이름은 청양(靑囊)이며 호지(胡地)에서 난다와 백유마(白油麻: 흰참깨)가 있다.<sup>10)</sup>

유만주는 도(稻), 양(梁), 서(黍), 직(稷), 맥(麥), 속(菽), 마(麻) 등 모두 7개의 곡식 부류를 제시했다. 각각의 하위어에 속하는 곡식들로 보건대, 이 7곡은 쌀(찹쌀, 멥쌀), 조(청차좁쌀, 노란좁쌀, 흰좁쌀), 기장(기장쌀, 수수, 옥수수), 피, 보리(보리, 밀, 귀리, 메밀), 콩(콩, 팥, 녹두), 깨(흑임자, 흰참깨) 등이다.

그의 분류법은 동시대인인 성해응(成海應, 1760~1839)의 방식과 조금 다르다.<sup>11)</sup> 성해응은 도(稻: 벼), 서(黍: 기장), 직(稷: 피), 속(粟: 조), 대두(大豆: 콩), 소두(小豆: 팥), 맥(麥: 보리), 임(菴: 깨) 등 모두 8개의 상위어를 두고 102개의 곡물명을 분류했는데,<sup>12)</sup> 이 중 벼, 기장, 피, 조, 콩, 보리, 깨 등 7가지 곡물 명칭이 유만주의 7곡과 겹친다.<sup>13)</sup> 다만 유만주의 경우 콩의 하위어에 팥을 포함시켰으나 성해응은 팥을 콩과 대등한 분류명칭으로 간주했으므로 상위어가 하나 더 많게 된 것이다. 여타의 분류방식, 이를테면 보리의 하위어에 밀, 귀리, 메밀까지 포함시킨 점 등은 양자가 거의 일치하고 있는바, 유만주의 7곡 명칭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과 멀지 않아 보인다.

본디 지니고 있던 곡물명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유만주가 ‘화곡’(禾穀)

10) ○考七穀之名, 稻有糯米粘·粳米, 梁有青梁粘·黃梁·白梁, 黍有秠米粘黍宜釀·秠葛俗稱唐米, 南人謂之蘆稌·玉秠, 稷稌之異名, 似黍而小, 麥有大麥秋·小麥密·穰麥表大麥春·蕎麥即木米, 菽有大豆黑白二種·紅豆·菘豆, 麻有湖麻即粘黑菴, 葉名靑囊, 出胡地·白油麻. 1780.5.11)

11) 유만주의 7곡과 성해응의 8곡 사이에 나타나는 표기법의 차이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해응은 한자로 된 곡식 명칭에 ‘송’, ‘뫏’, ‘쨌’ 등 한글 이름을 병기했다. 유만주는 한글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밀’과 ‘메밀’의 경우에 대해서는 ‘密’, ‘木米’라 하여 한자를 사용한 음차표기를 하거나 조선에서만 통용되는 한자어로 고유어의 음가를 반영한 표기방법을 사용했다. 메밀에 대해 ‘木米’라 한 것은 홍만선의 『산림경제』 권3 『구급』(救急) 중 ‘지네에게 물렸을 때’의 처방 가운데 보인다. 단 『산림경제』의 기존 번역본에서는 ‘木米’를 ‘뚝밥’으로 추정했으나 『만기요람』 등 여타 용례를 두루 보건대 메밀로 판단된다.

12) 신중진, 『연경제전집』에 실린 <稻 벼> 곡물명에 대한 어휘사적 연구, 『동아시아문화연구』 52,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2.

13) ‘조’와 ‘깨’를 표기하는 한자가 ‘梁/粟’, ‘麻/菴’으로 다르지만 내포하는 바는 그리 다르지 않다. ‘梁’의 훈은 ‘기장’이 일반적이나 ‘黃梁飯’의 경우에서처럼 ‘조’를 뜻하는 경우도 간혹 보인다.

부에서 추출한 곡물명을 나열하면 다음의 <표1>과 같다. 『속어명물해』에 서는 큰 글씨의 한어 표제어 하단에 표제어를 정의하거나 설명하는 협주(夾註)를 작은 글씨로 기재하는 형식이 반복된다.<sup>14)</sup>

한어표제어	『흙영』협주	『역어유해』내용	한어표제어	『흙영』협주	『역어유해』내용
大米	同稻	니밭	稗子	稗	피
小麥	密	밀	薔薔	唐米	슈슈
蕎麥	木米	모밀	玉薔薔	玉唐	옥슈슈
籼子	黍	기장	小豆	紅(紅豆의 축약)	팥
黃粘籼子	眞黍	출기장	玉米珠子	栗煤	율모밭
小米	粟	조밭	芝麻	眞荳	참깨
黃小米	眞粟	츠조밭	蘇子	水荳	들깨
黑粘穀米	靑粱米	청粱미	零大麥	歸于里	귀우리

<표 1> 禾穀 (가)

7곡의 분류 명칭 중 ‘보리’가 빠졌고, 기존에 언급하지 않은 ‘율무쌀’이 추가된 외에는 1년 전에 고찰한 것과 유사하게 곡물 명칭을 추출해 제시했으며, 각각의 곡물명을 표기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졌다. 먼저 ‘粱’과 ‘麻’로 표기했던 조와 깨는 각각 ‘粟’과 ‘荳’으로 적었는데, 결과적으로 성해옹의 표기법과 같아졌다. 『역어유해』의 내용을 참작하여 좀 더 일반적인 표기법을 사용한 결과로 보인다. 다음으로, 접두어 ‘眞’의 사용이 주목된다. 이는 두 가지 용례를 보이는데, 하나는 ‘眞荳’의 경우처럼 ‘참깨’의 ‘참’에 해당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찰기장’과 ‘차좁쌀’을 지칭하는 ‘眞黍’, ‘眞粟’에서와 같이 기존에 ‘粘’이라 적었던 것을 대체한 경우이다. 전자는 ‘眞’의 뜻을 차용한 훈차 표기로 간단히 이해되는데, 후자의 경우는 ‘참’이 ‘粘’(끈끈할 점)의 음과 뜻 어느 것보다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므로 추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 외 고유어의 음가를 반영한 표기에 적극성을 띠게 되었다는 변화도 찾아볼 수 있다. 7곡의 명칭을 고찰할 때와 마찬가지로 밀을 ‘密’로 메밀을 ‘木米’로 표기하고 있거니와, 율무를 뜻하는 ‘栗煤’와 귀리를 뜻하는 ‘歸于里’는 음차를 사용하여 고유어 음가를 표기한 예에 추가된다.

14) 비교의 편의를 위해 원래 『역어유해』에서 표제어에 부기된 설명 내용을 오른쪽에 병기했다. 이하 같다.

한어표제어	『흙영』협주	『역어유해』내용
豆楷	太角大	콩각대
麻楷	겨릅대	겨릅대
麻刀	三去兀	삼썬울
糲的	피	피
粘的	찰	찰

&lt;표 2&gt; 禾穀 (나)

그런데 유만주가 ‘禾穀’으로부터 추출한 어휘는 5개가 더 있다. <표2>의 어휘는 <표1>에 수록된 것과 별도로 『속어명물해』의 후반부에 기재된 것인데, 이로부터 해당 어휘를 곡물 명칭으로부터 분류하고자 한 편자의 의도가 파악된다. ‘피’(=메)와 ‘찰’(=찰)은 곡식의 찧기를 기준으로 한 접두사이고, 콩각대(=콩대)와 겨릅대, 삼거울(=삼거웃) 등은 곡물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인용된 어휘들은 太角大(콩+각+대), 겨릅대(겨릅+대), 三去兀(삼+거+울) 등 조선식 한자 ‘太’를 사용하거나, 한자음을 이용한 음차표기를 하거나, 한글 표기까지 시도하고 있는 등 고유어의 음가와 의미를 나타내는데 적극적인데, 이는 『속어명물해』의 표기법의 일단을 보여준다.

이상에 살펴본 표기법의 변화는, 편자가 1년 전 7곡을 분류하던 때에 비해, 동시대의 구어 상황에 한층 가까워졌다는 점에서 주목되며, 이는 일정 정도 『역어유해』의 고유어 표기에서 영향을 받은 결과로 여겨진다.

## (2) 채소(菜蔬)

‘화곡’에 이어지는 어휘군은 『역어유해』 하책의 7번째 부문인 ‘채소’(菜蔬)로부터 추출한 것으로, 모두 식재료가 되는 채소의 이름이다.

‘채소’에서 추출한 어휘들도 ‘곡물’에서와 마찬가지로 『역어유해』의 원래 표기와 달리 한자의 음차와 훈차표기를 주로 사용해 고유어 물명을 기재했다.

먼저 ‘牙玉’(아옥: 아옥), ‘扶老’(부로: 상추), ‘拜次’(배차: 배추), ‘未羅里’(미라리: 미나리), ‘番’(파), ‘馬刺’(마랄: 마늘), ‘次造其’(차조기), ‘東華’(동화: 동아), ‘外’(외: 오이), ‘外束’(외숙: 윗숙), ‘朴’(박), ‘非濼’(비름), ‘澁主’(삽주), ‘古沙理’(고사리), ‘粟古’(표고) 등은 음차표기에 해당된다.

한어표제어	『흠영』협주	『역어유해』내용	한어표제어	『흠영』협주	『역어유해』내용
豆芽菜	菘豆油	녹두기름	天瓜	天脫伊	하늘타리
葵菜	牙玉	아혹	葫蘆	朴	박
蒿苳菜	扶老	부로	旱茄子	외茄支	외가지
白菜	拜次	빅치	莧菜	非凜	비름
蘿蔔	竹无憂	땃무우	蒼朮菜	澁主	삼두
蔓菁	炭无憂	숯무우	拳頭菜	古沙理	고사리
芥	笠	갓	山芹菜	眞菜	참나물
水芹	未羅里	미나리	藕菜	蓮根菜	넉근치
蔥	番	파	靑角	又云鹿角	청각
蒜	馬刺	마늘	香蕈	票古	표고
牛蒡	牛嵬	우嵬	松磨果	松耳	송이
芋艸	芋卵	토란알	苜蓿	去惟木	거유목
紫蘇	次造其	츠조기	苦蕒	途닷	도닷
冬瓜	東華	동화	山蔘	더德	더덕
黃瓜	外	외	萹蒿	水蓬	물밖
瓜瓠	外束	외속	蔥筆頭	蔥從支	파종지
瓢瓜	眞瓜	참외			

&lt;표 3&gt; 菜蔬 (가)

다음으로 ‘笠’(갓), ‘眞瓜’(참+외), ‘眞菜’(참+나물), ‘水蓬’(물+쑥) 등은 훈차표기에 속한다. 한자의 훈을 빌어 적절한 번역어가 되게끔 단어를 조합하고 있는데, 그 중 ‘笠’과 같이 그 훈이 채소 ‘갓’의 동음이의어가 되는 한자를 차용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菘豆油’(녹두+기름), ‘竹无憂’(대+무우), ‘炭无憂’(숯+무우), ‘天脫伊’(하늘+탈이: 하늘타리), ‘蔥從支’(파+종지)에서처럼 훈차와 음차를 혼용하여 표기한 예도 발견된다. ‘菘豆’(한자어)와 ‘油’(훈인 ‘기름’이 ‘기르다’의 명사형과 동음이의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녹두기름’은 숙주나물을 뜻하는데, “菘豆長音”이라고 달리 표기한 예가 『만기요람』(萬機要覽)에서 참조된다. ‘竹无憂’(땃무우: 당근)와 ‘炭无憂’(숯무우: 순무)는 각각 ‘竹(훈: 대)+无憂(음: 무우)’ 및 ‘炭(훈: 숯)+无憂’로 분석된다.<sup>15)</sup> 다만 ‘대나무’와 ‘숯’이

15) 유만주는 2년 후에 강세황의 ‘순무’ 그림을 본 일을 일기에 적으며 위에 언급된 ‘炭无憂’를 ‘雄畜’으로 달리 표기하기도 했다. 이 단어는 ‘雄(훈인 ‘숯’의 음을 차용)과 ‘畜(훈차)의 조합으로 이루어졌다.(○朝拜蘭洞族祖, 評訂雷淵之書, 拜駱洞叔母, 歷見『說鈴』姜世晃小畫雄畜.

이 단어의 의미와 별 관계가 없다고 추정된다는 점에서, ‘天(훈: 하늘)+脫伊(음: 탈이)’와 ‘蔥(훈: 파)+從支(음: 종지)’<sup>16)</sup>의 조어법과 약간 다르다.

여러 방식 중 ‘牛嵬’(우영), ‘毘茄支’(피가지), ‘途랏’(도랏: 도라지), ‘더덕’(터덕) 등 한글 표기가 제한적으로 사용된 점도 눈에 띄는데, 이 점을 ‘화곡’(禾穀)에 ‘겨릅大’라는 표기가 등장했던 것과 함께 논할 수 있다. ‘嵬’, ‘피’, ‘랏’, ‘더’, ‘겨’, ‘릅’ 등은 당시 조선에 통용되던 한자의 음과 훈을 차용해서는 표기하기 곤란한 음가를 갖는 것들에 속하는바, 편자 유만주는 한글이 아니면 표기할 수 없는 글자에 한해 한글로 기재했다고 추정된다.

한어표제어	『흙영』협주	『역어유해』내용
挽菜	探	늑물키다
剝蒜	剝	마늘썩다
燂菜	데치 又燂菜	늑물데티다

<표 4> 菜蔬 (나)

한편 편자는 ‘채소’로부터 추출한 어휘 중 <표4>에 제시된 3건을 별도로 분리했다. 이는 모두 채소의 이름이 아닐 뿐 아니라 ‘(나물)캐다’, ‘(마늘)까다’, ‘(나물)데치다’ 등 동사이므로 <표3>의 어휘와 함께 묶이기에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표제어 ‘挽菜’의 경우 동사인 ‘探’만을 적었고, ‘剝蒜’과 ‘燂菜’는 ‘剝’와 ‘데치’라 하여 동사의 어간만을 적었는데, 품사에 대한 고려가 반영된 징후다.

### (3) 수목(樹木)

본디 『역어유해』에는 ‘채소’와 ‘수목’(樹木) 사이에 ‘기구’(器具) 이하 10개의 부문이 배열되어 있으나, 『속어명물해』의 ‘수목’에 속한 어휘들은 저본의 순서를 거슬러 앞으로 배치되었다. 분류명 사이의 친연성을 고려하여

1783.7.19.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표암첩』에 순무를 그린 소폭(24.5×16.3cm)의 수목담 채화가 있어 참조된다.

16) 한어 표제어 ‘蔥筆頭’, 한글 표기 ‘파종지’에 해당하는 이 물명에 대해서는 미상이다. 다만 『역어유해보』에 수록된 ‘蔥筆管’이라는 표제어에 ‘팻종지’라고 적혀 있어 참조된다.

재배치한 결과다.

한어표제어	『흙영』협주	『역어유해』내용	한어표제어	『흙영』협주	『역어유해』내용
茶條樹	申木	신나무	沙木	自作木	즈작나무
白榆樹	르름木	르름나무	鴨脚樹	銀杏木	은향나무
黃槐	느티木 又云黃榆	느티나무	暖木	黃檗木	황벽나무
刺松	老椽子	노가죽	樺皮木	本木	벗나무
柏松	側柏 又云匾松	측백	蘇木	多木	다목
椴木	皮木	피나무	荊條	駝而	탈리
牛筋木	博達木	박달나무	松塔子	松鈴	솔방울
苦理木	无프레	무프레	櫟實	徒吐里 又里皂斗	도토리
刺楸樹	奄木	엄나무			

<표 5> 樹木

『역어유해』에서 ‘나무’로 표기된 부분이 하나같이 ‘木’으로 대체되었다는 점에서 규칙성을 보인다. 그 외 나무[木]의 이름에 해당하는 부분은 ‘申’(신나무), ‘皮’(피나무), ‘博達’(박달나무), ‘奄’(엄나무), ‘自作’(자작나무) 등 음차가 가장 많다. 『역어유해』의 ‘벗나무’(벗나무)에 상응하는 ‘本木’은 [본나무]라는 음가를 표시한 것인데 자음동화의 결과를 반영한 점에서 저본과 다르다. 저본의 ‘다목’은 ‘多木’으로 음차표기했는데 통용되는 한자표기인 ‘丹木’과 다르다.

그 외 ‘老椽子’(노간주나무)와 ‘側柏’(측백), ‘銀杏木’(은행나무), ‘黃檗木’(황벽나무), ‘松鈴’(솔방울) 등은 당시 통용되던 한자 표기 방식에 준한 것이다. 노간주나무의 경우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에 ‘老可子’로, 『일성록』(日省錄) 1785년 8월 26일조에 “老嘉子”로 유사하게 표기하고 있으며, ‘側柏’, ‘銀杏木’, ‘黃檗木’, ‘松鈴’은 통용되던 한자어 표기법으로 확인된다.<sup>17)</sup> ‘르름木’(르름나무), ‘느티木’(느티나무), ‘无프레’(물푸레나무), ‘駝而’(싸리나무)는 앞서 ‘채소’에서 인용된 일부 어휘들과 유사하게, 한자로 표기하기

17) 이하 『표준국어대사전』 등 사전에 등재된 표기법과 일치하는 경우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으며, 그 외 희귀한 용례가 발견된 경우에는 출전을 밝히기로 한다.

어려운 음가를 한글로 적어 넣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 중 ‘르름木’의 ‘름’은 『역어유해』(“르름나무”)와 달리 자음동화가 반영된 표기이다. 위의 ‘本木’과 마찬가지로, 소리 나는 것에 가깝게 표기하고자 한 의도를 추측할 수 있다.

마지막 항목의 ‘徒吐里’(도+토+리)는 순전한 음차표기다. 아래 부기된 “又里皂斗”는 한어 “櫟實”의 동의어로서 『역어유해』에 등재된 별도의 표제어인 “皂斗”를 함께 적고자 한 것이며 그 중 ‘里’는 연자(衍字)다.

#### (4) 화초(花草)

‘화초’(花草)는 『역어유해』에서 ‘수목’의 앞에 배치되어 있으나, 『속어명물해』에서는 순서가 바뀌어 실렸다. 식물 중 수목과 화초의 위계에 대한 의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한어표제어	『흙영』협주	『역어유해』내용	한어표제어	『흙영』협주	『역어유해』내용
鷄冠花	萬徒南伊	만도라미	蒼耳	徒古末而	도꼬마리
水荳花	蓼花	료화	冬靑子	冬生伊 一云寄生中	겨오사리
冬花	冬柏	동백	蓼藍	族	족
木槿花	無窮花	무궁화	灰菜	明和子	명화지
綠梅花	雞心	닭의심팍	蓖麻	皮麻子 一云大麻	피마자
僧帽花	吉更花	도라지꽃	八散葫	談長伊	담장이
荻子艸	達	달	天茄子	加麻宗	가마종이
莞艸	骨 又云水蔥	골	覆盆子	딸기	딸기
蓬蒿	多伏蓬	다복팍	紅姑娘	古阿里	꼬아리
蒲艸	付들	부들	菱角	麻南 又云水栗	마람

<표 6> 花草

통용되던 한자어 표기방식을 따른 것으로는 ‘蓼花’(료화), ‘冬柏’(동백), ‘無窮花’(무궁화), ‘吉更花’(도라지꽃), ‘皮麻子’(피마자)<sup>18)</sup> 등을 들 수 있다.

한어 표제어 ‘녹매화’(綠梅花) 및 고유어 ‘닭의심팍’에 해당하는 ‘雞心’의

18) 皮麻子: 사전에는 ‘草麻子’로 등재되어 있으나 『일성록』 1795년 10월 25일조에 ‘皮麻子’로 표기한 예가 확인된다. 한편 ‘皮麻子’에 부기된 ‘一云大麻’는 ‘大麻’라는 어휘가 한어 ‘蓖麻’의 동의어이자 별도의 표제어로 『역어유해』에 등재되어 있는 점과 상응한다.

경우는 훈차의 결과인 듯하다.<sup>19)</sup> 그 중 ‘心’은 고유어명칭 ‘닭의심꽃’ 중 ‘심’에 해당한다. 비슷한 형태의 ‘닭의심가비’에도 ‘심’이 포함되어 있어 참조된다. 그러나 편자가 ‘심’을 ‘心’으로 표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후고를 요한다.

한어 ‘綠梅花’에 상응하는 초본에 대해서는 미상이다. 그러나 ‘닭의심꽃’(유의어 ‘닭의심가비’)이라는 고유어 명칭을 단서로 삼자면 이는 ‘쇠별꽃’(Stellaria aquatica)이 아닌가 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유의어 ‘닭의심가비’를 ‘달개비’의 동의어인 닭의장풀(Commelina communis)로 보았으나 착오가 있는 듯하다.<sup>20)</sup> 유만주는 1780년 7월 5일에 자신의 뜰에 핀 새파란 풀꽃을 두고 “속명(俗名)이 ‘계갑화(鷄甲花)다”<sup>21)</sup>라 했는데, 이는 ‘鷄(달=닭)+甲(갑)+花(꽃)’로 분석되어 ‘달개비꽃’으로 읽힌다. 이로 보건대 편자는 이미 ‘달개비’를 알고 있었고, 한어 ‘녹매화’ 및 고유어 ‘닭의심꽃’에 해당하는 ‘雞心’은 그와 별개의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이는 지금의 쇠별꽃에 해당하는 초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한편 유만주의 물명 표기를 통해 그가 고유어의 어원을 파악하는 방식에 대해 추적할 수 있다. 이를테면 ‘다복팍’은 ‘多伏(음)+蓬(훈)의 조합으로 적었는데 이는 그가 ‘다복’이라는 말의 의미를 굳이 분석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반면 ‘冬生伊’로 적은 겨우살이는 冬(훈)+生(훈)+伊(접미사)라고 분석되는데, 월동을 한다는 특징과 이름을 관련지어 파악한 것이다.

그렇지만 고유어로 된 풀꽃의 이름은 어원추적이 쉽지 않은데, 유만주 역시 적극적인 분석을 시도하기보다는 한자를 사용한 음차에 의존하고 있는 편이다. ‘萬徒南伊’(만도남이: 맨드라미), ‘達’(달), ‘骨’(골), ‘徒古末而’(도고말이: 도꼬마리), ‘族’(족: 쪽), ‘談長伊’(담장이: 담쟁이), ‘加麻宗’(가마중: 까마중), ‘古阿里’(고아리: 파리), ‘麻南’(마남: 마름), ‘明和子’(명화자: 명아

19) ‘계심(雞心)은 ‘닭의 심장’ 혹은 그것을 닮은 열매인 ‘계심빈랑’을 가리키는 한자어이나 여기서는 그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다.

20)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닭의장풀’의 유의어로 ‘달개비’, ‘계거초(鷄距草), ‘계장초(鷄腸草), ‘달기씨개비’, ‘닭의밀싹개’, ‘변루(蓼) 등을 들었다. 그러나 이 중 ‘계장초’와 ‘변루’는 달개비가 아니라 쇠별꽃에 해당되는 말이다. 『동의보감』에서는 ‘鷄腸草’를 한글로 ‘닭의심가비’라 표기했고, 『향약집성방』에서는 향명으로 ‘鷄矣十加非’(닭의심가비)라 적었으니 『물명고』에 ‘갓눈물’이라 되어 있는 초본과 같은 것이며 결국 쇠별꽃이다. 현대 중국어에서 닭의장풀/달개비에 해당하는 단어는 ‘鴨跖草’이고 쇠별꽃에 해당하는 것이 ‘鷄腸草’이다.

21) ○檀木下有草開花, 色澹紅, 或謂是江岸所生紅蓼花也. 石堦上, 亦有草花, 色純青, 俗名鷄甲花也. 青非花之恒色, 故視或似三島奇花.(1780.7.5)

주) 등 화초부에는 순전히 음차를 사용한 표기가 유독 많다. 그 외 ‘付들’(부들)과 ‘팔其’(팔기) 등 한글을 혼용한 표기에서도 음차가 사용되었다.

### (5) 비금(飛禽)

한어표제어	『흙영』협주	『역어유해』내용	한어표제어	『흙영』협주	『역어유해』내용
公鷄	雄雞 狗同	수닭	老鴉	老鴉	가마귀
莽雞	軟雞	연계	鶴鷹	小老其	쇼로기
鴨	集五里	집오리	胡鶩	明莫伊	명막이
鴿子	非들其 又云鴿鴿	비들기	梳鴨子	非兀伊	비울히
班鳩	山鴿	릿비들기	天鵝	昆而	곤이
弄鬪兒	徒弄太 [松鳥]	되롱태	麻雀	眞雀	참새
秋鷹	甫羅鷹	보라매	鷓鴣	山落	외츠라기
鴿子	鳥鷹 又云青鴿	새매	茶鳥	太雀	콩새
鸚哥	鸚武	잉무	紅鶴	多臥其	다와기
鶯鷲	海夜老非	하야로비	江鷹	曷覓其	굴머기
老鸛	閑雀	한새	夜猫	웃밤而 又云秃角	웃밤이
鷓鴣	斗老美	두로미	鷓鴣	법雀	법새

<표 7> 飛禽 (가)

동물 중 날짐승의 이름을 가장 먼저 수합했다. 이 중 통용되던 한자어로 확인되는 것은 ‘雄雞’(수닭), ‘軟雞’(연계), ‘山鴿’(산비들기),<sup>22)</sup> ‘鸚武’(앵무), ‘老鴉’(까마귀) 등이다. 이 중 ‘雄雞’에 부기한 ‘狗同’은, 한어에서 수캐를 지칭할 때 수닭을 지칭할 때와 마찬가지로 ‘公’이라는 접두어를 붙인다는 점을 지적한 말이다. 즉 『역어유해』에 제시된 한어 표제어에 따르자면 수닭은 ‘公鷄’이고 수캐는 ‘公狗’인데, 이로부터 일종의 규칙성, 즉 ‘公’이 ‘수컷’을 뜻하는 한어의 접두어 중 하나라는 점을 발견하여 밝히고 있는 셈이다. 이는 한어 어휘를 익히려는 시도로 보인다.

날짐승의 이름을 표기한 목록에는, 풀꽃의 이름에서와 마찬가지로 음차가 훈차보다 많다. ‘集五里’(집오리), ‘非들其’(비들기: 비들기), ‘徒弄太’(도롱태), ‘海夜老非’(해야로비: 하야로비), ‘斗老美’(두로미: 두루미), ‘小老其’

22) 山鴿: 이광사의 『원교집』 권2 『自笑』의 “鈎欄山鴿飛, 發刺野鷄飛” 참조.

(소로기), ‘明莫伊’(명막이: 명막이), ‘非兀伊’(비올이: 비오리), ‘昆而’(곤이: 고니), ‘多臥其’(다와기: 따오기), ‘曷覓其’(갈떡기: 갈매기) 등 순전히 한자음을 차용하여 새의 이름을 표기한 예를 다수 발견할 수 있다. ‘옷밤而’(올빼미)와 같은 경우 부분적으로 음차를 썼으며 한자음을 빌려 오기 어려운 음가에 한해 한글 표기를 했다.

다음으로 훈차를 한 경우는 ‘眞雀’(참+새)과 ‘太雀’(콩+새), ‘鳥鷹’(새+매), ‘법雀’(법+새=뱀새)을 들 수 있다. [새]라는 음가를 표기하기 위해 ‘雀’과 ‘鳥’를 사용했는데 그 쓰임이 뚜렷이 구분된다. ‘조류’라는 뜻과 ‘새’라는 음을 함께 갖는 단어를 표기하는 데 ‘鳥’가 아닌 ‘雀’을 사용하고 있음이 흥미롭다.<sup>23)</sup> 이 외에 음차를 혼용하여 ‘閑雀’(한+새=황새)이라 표기한 경우에도 같은 용법을 보인다. ‘雀’이 ‘새’를 나타내는 것은 ‘鳥鷹’의 ‘鷹’이 [매]라는 소리와 아울러 그런 이름을 갖는 맹금류를 지칭하는 것과 유사하다. ‘甫羅鷹’(보라+매)의 ‘鷹’도 마찬가지다. 반면 ‘鳥鷹’의 ‘鳥’는 이것이 [새]라는 음가를 나타내는 것은 분명하지만 조류 일반을 뜻하는 말로 쓰인 것 같지는 않아 ‘雀’과 구별된다.<sup>24)</sup>

한편, 『역어유해』 ‘비금(飛禽)에 등재된 것 중 다음 <표8>의 어휘들은 별도로 분류되어 후반에 첨부되었다. 모두 닭과 관련된 어휘로서 달걀이나 닭의 각 부위, 닭을 요리하는 방법 등과 관련된 것들이며, 조류 일반의 이름을 수습한 <표7>과 구분된다.

한어표제어	『흙영』협주	『역어유해』내용	한어표제어	『흙영』협주	『역어유해』내용
鷄鳴	鷄卵	닭의알	嗉袋	鷄生覓	닭의산떡
啄鷄	鷄開鳴	알뜰다	土浴	鷄寶金自里淩	닭보금자리티다
頭窩兒	初腹	첫뱃	搗雞	뜻어	닭뺏다
鷄頸子	項	닭의목	退鷄	튀	닭튀혔다
鷄腿	股	닭의다리	燒雞	炙	닭굽다
鷄瓜子	足	닭의발	炒鷄	炒	닭초하다
鷄肫	糞開	닭의똥개			

<표 8> 飛禽 (나)

23) 『표준국어대사전』의 ‘새’ 항목에 제2의미로 ‘참새’가 등재되어 있다. ‘새’는 ‘참새’의 동의어다.

24) ‘山落’은 ‘되(훈)+락(음)’으로 분석되어 ‘메추라기’와 관련되지만 빠진 부분이 있어 보인다.

이하의 <표9>와 <표35> 역시 맹금류 ‘매’와 관련된 어휘로 ‘飛禽’에 등재된 것이나 별도로 분리되었다. 날짐승의 이름이 아니라 관련 도구 이름 혹은 동사라는 점에서 <표7> 및 <표8>과 구분된다.

한어표제어	『흙영』협주	『역어유해』내용
鷹隼	鈴	上全(매방울)
鷹塾板	丹長古 或云標兒	매단당고 或云標兒

<표 9> 飛禽 (나)

한어표제어	『흙영』협주	『역어유해』내용
鷹打潮	下糞	매똥누다

<표 10> 飛禽 (다)

(6) 주수(走獸)

‘走獸’에서는 말, 소, 개, 염소, 쥐, 두더지, 담비, 이리, 족제비, 삿, 다람쥐 등이 선별되었다. 그 중 말과 개에 대해서는 종류나 성향에 따른 하위어 명칭을 다수 적고 있다.

한어표제어	『흙영』협주	『역어유해』내용	한어표제어	『흙영』협주	『역어유해』내용
四明馬	四足白	사족백	獅子狗	더八狗	더덜개
騾馬	雌馬	암말	風狗	狂犬	미친개
點的馬	加脫爲馬	가탈호는말	絡絲狗	溢煞狗	삼살개
馬竄馬	步馬	걷는말	山羊	羔	염소
撒癩馬	去馳는馬	거티는말	耗子	鼠	쥐
熟癩馬	들霸眞馬	들피딘말	貽鼠	斗더鼠	두더쥐
懶馬	쁜馬	쁜말	貂鼠	敦皮	돈피
疥馬	煞眞馬	술진말	狼	一耳	일히
光當馬	달能而는馬	달녕이는말	野猫	슌	슌
響走馬	麻伊丹關馬	마이닷는말	黃鼠	足諸非	족저비
花牛	斑牛 狗同	어룡쇼	山鼠	多那末 一云 松鼠 花鼠	드라미
鹿尾狗	東京	동경개			

<표 11> 走獸 (가)

먼저 ‘羔’(염소), ‘鼠’(쥐), ‘四足白’(사족백), ‘雌馬’(암말), ‘東京’(=동경견), ‘狂犬’(미친개) 등 통용되는 한자어를 사용한 예를 먼저 지적할 수 있다. ‘敦

皮(담비)와 같은 경우 동일한 용례는 드물지만 담비 가죽을 뜻하는 ‘獬皮’라는 어휘가 잘 알려져 있으므로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하다. ‘班牛’(얼룩소)의 뒤에는 ‘狗同’이라고 부기되어 있는데 이는 앞서 한어 ‘公’이 수컷을 뜻하는 접두어임을 밝혀 준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즉 한어의 ‘花牛’는 얼룩소를 의미하는데 같은 원리로 ‘花犬’은 얼룩개를 가리킨다는 것이다. ‘班牛’의 용례는 찾지 못했으나 같은 조어법을 이용한 ‘班狗’는 보인다.<sup>25)</sup>

말의 하위어 중에는 그 상태를 서술한 관형어가 붙은 것이 많은데 이에 대해, ‘步馬’(걷는+말)나 ‘加脫爲馬(가탈+하는+말)<sup>26)</sup>의 경우처럼 고유어 어순에 따라 번역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麻伊丹蘭(마이단란: ‘마이닷논’을 자음동화까지 반영하여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 煞眞(살진) 등 의미와 무관한 한자음을 빌어 표기했고, 去馳(거치는=거티는), 들覇眞(들패진=들피딘), 𠵼(=뽀), 𠵼能而(덜능이는=덜녕이는) 등 한글을 혼용한 음차를 시도했다. 개의 하위어 중 澁煞狗(삽+살+개)와 더八狗(더+팔+개: 더펄개) 역시 음차에 더 의존한 경향을 보이며, 여타 斗더獸(두+더+쥐), 一耳(일+이: 이리), 足諸非(족+저+비: 족제비), 多那末(다+나+미: 다라미) 등의 동물 이름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한어표제어	『흙영』협주	『역어유해』내용
放靑	放中(=放草)	풀에 놓다
拋糞	馬放	똥놓는다
馬潮	溺	똥오줌누다
流痰	慎鼻諸	신코지다
馬蹄腕	回木	똥희목

<표 12> 走獸(나)

<표 12>에 수습된 어휘들은 앞서와 같은 방식으로, 走獸부에 속해 있었으나 별도로 뒤로 보내진 것들이다. ‘풀에 풀어놓다’, ‘말이 放糞하다’, ‘오줌누다’, ‘신코지다’,<sup>27)</sup> ‘말의 발목’ 등 말과 관련된 동사 및 명사로, 길짐승의

25)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 중 『狗辨證說』에 “花狗, 卽班狗也”라는 내용이 보인다.

26) 가탈: ‘가탈하다’의 어간이다. ‘가탈하다’는 ‘가탈거리다’(말이 비틀거리며 걷다)의 옛말이다.

27) ‘신코지다’의 어간인 ‘신코’는 명사로서 ‘말이 병으로 흘리는 코’를 뜻하는 옛말이다.

이름에는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이다.

(7) 곤충(昆蟲)

‘昆蟲’에 속한 어휘로는 귀뚜라미, 잠자리, 매미, 달팽이, 노래기, 혀,<sup>28)</sup> 벼룩, 빈대, 딱정벌레, 바퀴, 쥐며느리, 메뚜기, 거머리, 머구리, 두꺼비, 그리마, 하루살이, 진대,<sup>29)</sup> 쉬, 도마뱀, 독사, 도롱이 등이 선별되었다. 그 중 달팽이와 노래기, 쥐며느리, 거머리, 머구리(=개구리), 두꺼비, 그리마, 도마뱀, 독사, 도롱이(=도롱뇽) 등은 지금 곤충으로 분류되는 동물이 아니지만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벌레’의 범주에 포함시켰던 것들이다. 『역어유해』와 『속어명물해』의 편자들은 대체로 이 분류에 동의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한어표제어	『흙영』협주	『역어유해』내용	한어표제어	『흙영』협주	『역어유해』내용
織兒	歸徒那未 又云虹蠶	귀도라미	螞蚱	뿔徒其	뿔도기
蜻蜓子	淺自里	즌자리	馬蝗	去머리	거머리
秋涼兒	蟬	막얌이	田鷄	머久里	머구리
中螺子	達彭而 又云蝸牛	들팽이	黑蠃	斗擔非 又云蟪蝓	뚝터비
蜈蚣	老乙也其	늘여기	蠍螋	奇里每	그리매
蟻子	혀	혀	陰生虫	一日生	헝르사리
跳蚤	벼象	벼룩	中蠃	眞代	진되
壁虱	賓代 又云臭虫	빈대	白蛆	쉬	쉬
焦苗虫兒	닥將伐表	닥장벌레	馬蛇子	刀麻蛇 又云蠃蠃	도마뱀얌
蝦蟇	朴灰 又云金包虫	박회	蝮蛇	毒蛇	독사
負蝥	鼠婦 又云濕生虫	쥐며느리	蠃蜒	刀弄而	되룽

<표 13> 昆蟲

28) 혀: 이의 새끼. ‘세가리’(서캐)와 같은 의미의 단어로 추정된다.

29) 진대: ‘진드기’를 뜻하는 옛말로 어원은 ‘진되’다. 지금은 ‘진대 불다’라는 말에만 살아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말도 현재는 ‘빈대 불다’라는 말로 거의 변형된 듯하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진대’가 ‘남에게 달라붙어 떼를 쓰며 괴롭히는 짓’이라는 의미로만 등재되어 있다.

표기법을 살펴보면, ‘蟬’(매미)이나 ‘鼠婦’(쥐며느리)와 같이 통용되는 한자어 물명을 그대로 가져오거나, ‘一日生’(하루살이)의 경우처럼 의미를 밝히려 한 경우도 있지만 ‘歸徒那末’(귀도나미), ‘淺自里’(잔자리), ‘達彭而’(달팽이), ‘老乙也其’(노을야기), ‘벼衆’(벼룩), ‘賓代’(빈대), ‘朴灰’(박회), ‘뫓徒其’(뫓도기), ‘去머리’(거머리), ‘머久里’(머구리), ‘斗攄非’(두터비), ‘奇里每’(기리매), ‘眞代’(진대) ‘刀弄而’(도롱이) 등 음차가 압도적으로 많다. ‘刀麻蛇’(도마+뱀)의 경우 일부 혼차를 사용했다. 대체로 『역어유해』의 한글표기에 준하여 음차표기를 하고 있으나, [달팽이], [노을야기], [진대], [도롱이]는 『역어유해』의 “똥광이”, “놀여기”, “진되”, “되롱”과 조금 다른데, 여기서 현대한국어 발음에 근접하는 변화의 징후를 발견할 수도 있을 듯하다.

#### (8) 수족(水族)

‘水族’에 선별된 어족의 이름은 그 끝음절에 따라 ‘어’ 계열과 ‘치’ 계열, ‘리’ 계열, ‘미’ 계열 및 기타 규칙성을 발견하기 어려운 이름들로 나뉜다. 다음에 살펴볼 편자의 표기법에 이와 같은 분류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여겨진다.

한어표제어	『흙영』협주	『역어유해』내용	한어표제어	『흙영』협주	『역어유해』내용
八梢魚	文魚	문어	鰕魚	所加里 又云錦鱗魚	소과리
小八梢	絡蹄	낙디	鏡子魚	加自末	가자미
肋魚	委稚	준디	家鷄魚	道末	도미
烏鰕魚	烏鰕魚	오증어	鯨魚	乾魚 或云乾石首魚	乾魚 或云乾石首魚
烏魚	加勿致 又云 火頭魚黑魚	가물티	鱓子	屈 又云蠟房	굴
鮎魚	머有其	머유기	鯉腸	加里맛	가리맛
湘洋魚	加五里	가오리	石決明	同鮓	싱포
鯊魚	床魚	상어	黃鱔	蛇長魚	비암당어
刀梢魚	葦魚	위어	王八	鼈又云團語	자라
麵條魚	拜魚	빅어	尖臍	牡蟹	수게
梭魚	同秀魚	썩	團臍	牝蟹	암게
石首魚	助己	조괴	石螯	可在 又云刺古	가재

蘇魚	反堂伊	반당이	海鷄	申蟹	곶게
鱸魚	弄魚	룽어	昂刺	者可沙里	자가사리
重唇魚	宸致	눗티	江鮓	勿牙致	물아치
泥鰍魚	밧奇里	밧그리	沙骨落	某乃侮支	모래부디
秋生魚	銀口魚	은구어	淡菜	紅蛤	홍합
鮑魚	伏	복	螺螄	小螺	쇼라
裙帶魚	曷致	갈티	土螺	牛能伊	우릉이

&lt;표 14&gt; 水族(가)

‘어’ 계열의 끝음절은 예외 없이 ‘魚’로 표기했다. ‘文魚’(문어), ‘葦魚’(위어), ‘銀口魚’(은구어), ‘乾魚’(건어) ‘蛇長魚’(뱀장어)<sup>30)</sup> 등은 통용되던 한자어 표기법을 따랐고, ‘拜魚’(배어: 뱀어),<sup>31)</sup> ‘床魚’(상어), ‘弄魚’(농어) 등은 음차표기를 혼용했는데 비슷한 용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치’ 계열의 경우 처음 나온 ‘叡稚’(준치)를 제외하고는 모두 끝음절을 ‘致’로 표기했다. 도중에 음차표기의 원칙을 바꾸어 준수한 듯하다. ‘叡稚’를 포함하여 ‘加勿致’(가물치), ‘曷致’(갈치), ‘勿牙致’(물아치) 등 ‘치’ 계열의 어족 이름은 모두 음차표기를 따랐으며 ‘宸致’(눗치: 누치)처럼 한어 표기가 곤란한 음절이 포함된 경우 일부 한글로 표기했다. ‘리’ 계열은 ‘加五里’(가오리), ‘所加里’(소가리: 쏘가리), ‘者可沙里’(자가사리) 등으로 마지막 음절을 ‘里’로 통일하여 음차표기를 사용했고 ‘밧奇里’(밧기리: 미꾸리)에서는 ‘宸致’와 같은 이유로 한글을 썼다. ‘加自末’(가자미)와 ‘道末’(도미) 등 ‘미’ 계열도 모두 음차표기를 썼으며 끝음절에 ‘末’를 규칙적으로 사용했다.

기타 어족의 이름에서도 위와 비슷한 양상이 반복되어, ‘머有其’(머유기: 미유기), ‘助己’(조기), ‘反堂伊’(반당이: 뱀대이), ‘伏’(복), ‘屈’(굴), ‘加里 밧’(가리밧: 가리밧), ‘可在’(가재), ‘某乃侮支’(모내모지: 모래무지), ‘牛能伊’(우릉이: 우릉이) 등의 예에서 ‘머’, ‘밧’ 등의 음절을 한글로 적었으며 그 외에는 음차에 의존했다. 단 ‘絡蹄’(낙제: 낙지)의 경우 음차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 표기법이 널리 통용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sup>32)</sup>

30) 蛇長魚: 남용익의 『문견별록』 중 “炙則或魚或鳥, 而以蛇長魚爲第一味” 참조.

31) 뱀어에 해당하는 한어 ‘麪條魚’는 조선에서 주로 ‘白魚’로 표기되었다. 성현(成愼)의 『허백당집』 『白魚』 중 “白魚, 卽杜詩所謂白小, 今人謂之麪條魚” 참조.

32) 이익의 『성호사설』 만물문의 「鯉八梢鮫」에서 낙지를 ‘絡蹄’로 표기했다. 정약용의 『다산시문집』 권4의 「耽津漁歌」에 “漁家都喫絡蹄羹, 不數紅鯉與綠鯉”이라 했고, 권7 「尹正言挽詞」

어족 중 게의 경우 ‘蟹’로 표기했는데 ‘牡蟹’(수게), ‘牝蟹’(암게), ‘串蟹’(꽃게, 꽃게) 등 혼차를 따랐다. 그 외 ‘紅蛤’(홍합)<sup>33)</sup>과 ‘小螺’(소라)<sup>34)</sup>는 통용되던 표기법에 해당한다.

한어표제어	『흙영』협주	『역어유해』내용
鹵蝦	沙午醢	새오젓
魚秧	魚子	고기삿기
魚白兒	一喜	일의
魚鱠	不志	블에
蝦米	沙午絞	새오絞

<표 15> 水族(나)

<표15>는 <표14> 뒤에 수록된 5개의 어휘인데, 편자가 구별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앞서 언급한 <표4>의 채소 및 <표8>의 비금 관련 어휘와 한 무리로 적혀 있는데, 모두 채소나 날짐승, 물고기의 이름이 아니라는 점, 식재료가 될 수 있는 속성과 관련된 명사이거나 동사라는 점에서 내용상 친연성을 갖는다.

(9) 진보(珍寶), 직조(織造), 재봉(裁縫), 전농(田農), 잠상(蠶桑)

한어표제어	『흙영』협주	『역어유해』내용	한어표제어	『흙영』협주	『역어유해』내용
金珀(珍寶)	音佩	금패	犁鏵(田農)	犁刀	보심늘
琿琿(珍寶)	貝	자개	木杷子(田農)	小是浪 鐵司	나모쇼시랑
篋(織造)	篋大	비디	木杵(田農)	加乃 鐵司	나모가래
衲的(裁縫)	細縷飛	존누비	鐵鋤(田農)	鋤	삼
衣襟(裁縫)	骨肱	골홈	鐵鎚(田農)	光伊 又鐵頭	광이
棍襠(裁縫)	中衣底	등잇밧			

<표 16> 기타(가)

<표16>에 수렴된 어휘는, 한 부문에서 추출한 수가 현저히 적어 편의상

에서도 “龍穴嬉春事隔晨，絡蹄如玉鑰如銀”라 하여 같은 표기법을 볼 수 있다.  
 33) ‘紅蛤’의 초기 용례는 남효온의 『추강집』 권5 『遊金剛山記』 중 “令奴人採石決明小螺紅蛤海藿等物” 참조.  
 34) ‘小螺’의 초기 용례는 이색의 『목은시고』 권34의 『謝海州牧使送小螺蠶』 참조.

한 곳에 모아 제시했다. 진보에서 2건, 직조에서 1건, 재봉에서 3건, 전농에서 5건 등이며, 잠상에서는 1건도 추출하지 않았다.

농기구인 ‘小是浪’(소시랑: 쇠스랑)<sup>35)</sup> ‘加乃’(가내: 가래), ‘光伊’(광이: 팽이)<sup>36)</sup> 등은 음차표기를 따랐고, 직조 도구인 ‘帛大’(바대: 바다)와 의복 구성요소인 ‘骨肱’(골肱: 고름)은 음차표기와 한글표기를 함께 사용했다.

‘貝’(자개)와 鍤(삽), ‘中衣底’(중의+밑), ‘犁刀’(보습+날)<sup>37)</sup> 등은 통용되는 한자어를 사용하거나 그에 더해 훈차표기를 한 것이다. ‘細縷飛’(잔+누비)의 경우 훈차와 음차가 혼용되었는데, 해당 표기법이 통용된 것으로 확인된다.<sup>38)</sup>

한편 부기된 내용을 통해, 한어를 학습하려는 편자의 의도를 확인할 수도 있다. 한어 표제어 ‘金珀’ 아래 적힌 ‘音佩’는 ‘珀’의 한어 음이 ‘괘’라는 점을 밝힌 말이다. 광물의 일종인 호박을 뜻하는 이 글자는 조선에서는 ‘박’으로 읽혔다. 또한 ‘小是浪’과 ‘加乃’에 부기된 ‘鐵同’은 ‘철’의 경우도 (나무와) 같다’는 뜻으로, 한어 표제어인 ‘木杷子’와 ‘木杵’에서 ‘木’ 대신에 ‘鐵’을 붙여 단어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정보를 수렴했다.

다음 <표17>에 수록된 어휘는 위의 <표16>과 구분하여 후반에 첨부한 것인데, 잠상에 속한 어휘 ‘木徒其’(본도가: 번데기), ‘혀’(혀다)의 어간: 실켜다) 및 전농에 속한 어휘 중 농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田斗喋’(밭+두+喋: 밭두喋), ‘初生粟’(갓+난+곡식), ‘移모’(옮기기+모: 모내기), ‘徒里叉質’(도+리+차+질: 도리깨질), ‘米鑿’(쌀+숫다)<sup>39)</sup> 등을 수습했다.

35) 소시랑: 이 말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백석(白石, 1912~1996)의 시 『개구리네 한술밥』에 등장한 감각류 ‘소시랑개’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어 참조된다. 염창권, 『『개구리네 한술밥』의 구조와 교재화 방안 연구』, 『청담어문교육』 42, 청담어문교육학회, 2010, 445면.

36) ‘加乃’, ‘光伊’: 『가래도감의계영조정순왕후』 『修理所儀軌』 중에 용례가 보인다. 한편 ‘光伊’에 ‘又鍤頭’가 부기되어 있는 것은 ‘鍤頭’가 한어 ‘鐵鑄’의 동의어이자 별도의 표제어로 『역어유해』에 등재되어 있는 점과 상응한다.

37) ‘犁刀’의 용례는 정약용의 『여유당전서』 권15 『先仲氏墓誌銘』 “犁刀攸觸, 先獲我銘” 참조.

38) ‘細縷飛’의 용례는 신작(申緯)의 『석천유고』 권2 『先妣遺事』의 “女紅中細縷飛, 取不可爲也. 汝等甚欲衣縷飛者, 衣剪板縷飛可也” 및 정약용의 『여유당전서』 중 “雅言覺非, ‘衲衣’ 항목의 “衲衣者, 補紵之衣也. 東人誤翻爲縷飛, 衲衣華音作나히, 按譯書細縷飛 잔누비” 참조.

39) ‘쌀을 숫다’라는 뜻으로 ‘鑿’을 사용한 예는 윤기(尹楮)의 『무명자집』 2책 『田家秋事』의 “少婦庭鑿米, 長婦井垂瓢” 참조.

한어표제어	『흙영』협주	『역어유해』내용	한어표제어	『흙영』협주	『역어유해』내용
蚕蛹子(蠶蛹)	本徒其	본도기	插秧(田農)	移모	모음기다
田籩(田農)	田斗듬	밭두듬	縑絲(蠶桑)	혀	실혀다
打連櫛(田農)	徒里又質	도리채질헝다	帥一帥(田農)	米鑿	밭슬타
秧針(田農)	初生粟	갯난벼			

<표 17> 기타(나)

(10) 기구(器具)

다음의 <표18>은 일상생활에 쓰이는 다양한 도구들을 수렴하고 있으며, 수록된 어휘가 모두 77건으로 여러 부문 중 압도적으로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이는 앞서 진보, 직조, 재봉, 진농, 잠상 등에서 극히 소수의 어휘만을 추출했던 것과 꺾 대조적인데, 사대문 안에 거주하는 서울 토박이이자 20대 양반 남성으로 자신의 시시콜콜한 일상을 기록하는 데 관심이 많았던 편자의 성향이 반영된 결과로 추측된다.

한어표제어	『흙영』협주	『역어유해』내용	한어표제어	『흙영』협주	『역어유해』내용
太鍋兒	可麻	가마	荊籠	又籠	채룽
荷葉鍋	廣者	헤너러딘가마	荊筐	又筐做里	채광조리
鍋兒	鼎	솥	柳箱	섬	섬
鑼鍋	爐口	노고	提籃	舉筐	드논광조리
茶罐	湯罐	차당권	破落	古里	고리
銅碗	鑰器	놋그릇	拜帖匣兒	名啣筆匣	명함필갑
銅盆	鑰所那	놋소라	鏡奩	鏡家	거울집
洗臉盆	洗水所那	세수소라	切板	徒麻	도마
孟子	大也	대야	榔頭	메	메
磁碗	沙鉢	사발	烙鐵	印刀	인도
甌子	寶兒	보으	棒槌	方麻致	방마치
銅鈔	酒餞子	주전즈	趕麵棍	洪徒皆 又拗棒	홍돏개
甌子	甕	독	臥單	單衾	훗니불
壘子	[亢/皿]	항	靠墩	按席	안석
油瓶	所容	소용	涼墩	藤結按息	등으로거론안석
鑿子	炙餅編鐵	썩굼논편쇠	蘆席	삿	삿
炙床	炙肉炙鐵	고기굽논삿쇠	燈艸	灯心	심

火籠	焙籠	焙籠	紙捻兒	紙灯心	종희심
鐵撐	炙鐵	적쇠	明子	松明	관솔
漏杓	者	섯자	斲刀	斲刀	작도
杓	木周揭 銅同	나모주게	斲床	斲刀質	작도벗당
抹布	行子	행즈	鏟子	自怪	자괴
笊籬	照來	조리	鑿子	갈	갈
竹篩子	일명伊	일명이	推鉋	大貝	디과
羅兒	箕篩	김체	鐵鉗	集[去]曷	집게
馬尾羅兒	馬聽篩	물총체	泥托	泥受	흙받기
水斗	드레 又鐵落酒子	드레	鐵銼子	猝	줄
井繩	水斗繩	들엿줄	鐵鑽	非뫼	비뫼
酒榨	高子	술고즈	牽鑽	弓非뫼 又舞鑽	활비뫼
油榨	油高子	기름뜯는고즈	鉞針	뫼針	뫼마늘
酒甌	燒酒古午里	쇼쫘고오리	鐵鏈	麻致	쇠마치
甌兒	是ㄹ	시ㄹ	老鶴鏈	將道里	장도리
甌篋兒	甌 又甌底篋兒	시ㄹ밧	火鎌	火鐵	부쇠
酒篋子	龍所	용소	火石 火絨	火巢	부섯돌 부섯깃
酒帘	高子囊	술고즈주머니	帽架	笠巨里	갓거리
簽子	炙串	적곶	壓車	氏羊伊	삐양이
刷子	寫子 又帽刷	스자	紡車	勿內	물레
糊刷	歸夜	귀야	釘竿子	勿內加格	물렛가락
蠅拂子	蠅叉	푼리채			

&lt;표 18&gt; 器具 (가)

음차 표기가 두드러지는 예로 ‘可麻’(가+마), ‘所那’(소+나: 소라),<sup>40)</sup> ‘大也’(대+야), ‘所容’(소+용), ‘者’(자),<sup>41)</sup> ‘周揭’(주+게: 주걱),<sup>42)</sup> ‘照來’(조+래: 조리), ‘古午里’(고+오+리: 고리),<sup>43)</sup> ‘龍所’(용+소: 용수), ‘歸夜’(귀+야: 귀얄), ‘古里’

40) 소라: ‘소래’의 옛말이다. 동의어로 ‘소래기’가 있다. <표18>에 인용된 목록에서는 ‘籛所那’(뫼+소나), ‘洗水所那’(세수+소나)처럼 혼차와 함께 사용되었다.

41) 자: 석자. 철사로 잘게 그물처럼 엮어서 바가지와 비슷한 모양으로 만든 그릇이다.

42) 周揭: <표18>에서는 ‘木周揭’ 등으로 쓰였다.

43) 古午里: 『표준국어대사전』의 ‘쇼쫘고리’와 유사한 어휘다. <표18>에서도 ‘燒酒古午里’로 쓰였다.

(고+리) ‘徒麻’(도+마), ‘方麻致’(방+마+치: 방마치≒방망이), ‘洪徒皆’(홍+도+개: 홍두깨), ‘自怪’(자+괴: 자귀), ‘大貝’(대+패), ‘集[去+曷]’(집+게) ‘擗’(졸: 줄), ‘麻致’(마+치≒망치), ‘將道里’(장+도+리), ‘氏羊伊’(씨+양+이≒씨아),<sup>44)</sup> ‘勿內’(물+내: 물레), ‘勿內加洛’(물+내+가+락: 물렛가락)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음차의 예 가운데 ‘古午里’라는 표기가 주목된다. 같이 언급된 물명인 ‘古里’(고리)와 구분하고자 한 의도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고오리’는 소주를 내리는 데 쓰는 재래식 증류기로, 구리나 오지 등으로 만든 것이고, ‘고리’는 버들가지 등을 걸어 만든 상자로서 서로 다른 물건이지만, 현대 한국어에서는 구분되고 있지 않다. 유만주의 이와 같은 음차표기는 『역어유해』의 한글표기인 ‘고오리’와 ‘고리’에 상응하는 것일 터이나 음운을 다루는 면밀한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아도 될 듯하다.<sup>45)</sup>

그 외 ‘얼명伊’(얼명이), ‘是르’(=시루), ‘非뵈’(비뵈)<sup>46)</sup> 등 음차표기와 한글표기가 혼용된 예가 있고, ‘드레’(=두레), ‘솟’(=설기), ‘메’, ‘삿’, ‘꼴’(=꿀) 등 한글로만 표기한 예가 있는데 앞서와 유사하게 고유어 음운에 대한 편자의 분별력이 반영된 어휘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구’에 해당하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물명의 의미에 대한 고찰이 반영된 표기 방식이 더 두드러져 주목된다.

일반적인 훈차, 혹은 훈차를 혼용한 예로는 火鐵(불+쇠: 부쇠), 馬驄蹄(말+총+채: 말총채), 蠅叉(파리+차: 파리채), 笠巨里(갓+거+리: 갓걸이), 水斗繩(두레+줄: 두렛줄), 甌底(시루+밑: 시루밑), 鏡家(거울+집: 거울집), 斫刀質(작도+바탕: 작두바탕), 泥受(흙+받기: 흙받기), 箕篩(箕+채:箕채), 芻針(돗+바늘: 돗바늘)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더하여 ‘又筐做里’(차+광+주+리: 채광주리) ‘印刀’(인+도: 인두) 등은 음차에 기운 것으로 보이지만<sup>47)</sup> 사용된 한자인 ‘筐’(광주리)과 ‘印’(찍다)

44)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씨양이’가 ‘씨아’의 어원에 해당한다고 적었다.

45)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 『水火既濟爐辨證說』에서는 “按今水火爐之制, 或以鑄銅製之爲上, 其次以瓷爲中, 其次以烏瓷石間硃瓷爲下, 而陶土又爲最下, (….) 我東則以‘高里’稱焉”라 하여 ‘소숫고리’에 해당하는 물건을 지칭할 때 ‘高里’라고 음차했다. 이에 ‘고리’와 ‘고오리’의 음가를 구별한 유만주가 조금 더 면밀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보인다.

46) 비뵈: 표제어 ‘鐵鑽’으로 보아 ‘꼴’의 일종인 듯하다. <표18>에 ‘弓非뵈’(활+비뵈)라는 유사한 물건이 함께 언급되었다.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 『鄉居器什物名辨證說』 중 “鋸【大鑽柄橫於頭如丁字. 非뵈】”라는 내용이 참조된다.

의 의미가 해당 단어의 의미와 관련을 갖는다는 점에서 조어 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sup>48)</sup> 또한 훈차는 아니지만 『역어유해』에 한글로 적힌 물명의 의미나 속성을 다시 한문으로 번역하는 식의 기술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역어유해』의 ‘드는 광조리’는 조선어 어순에 따라 ‘擧筐’이라고 번역되었고 ‘등으로 겨룬 안석’ 역시 ‘藤結按息’이라고 조선어 어순을 따랐다. 반면 ‘썩 굶는 편쇠’에 해당하는 ‘炙餅編鐵’과 ‘고기 굶는 쇠쇠’에 해당하는 ‘炙肉 쇠鐵’은 한어의 어순을 따랐다. 그리고 ‘헤너러딘 가마’에 해당하는 ‘廣者’는 ‘헤너러딘’이 ‘넓은’에 상응함을 알려 준다.

‘기구’에서 어휘의 의미와 관련해 가장 주목되는 것은, 이 어휘군에 당시 통용되던 한자어가 상당수 수습되어 있다는 점이다. ‘鼎(솥), ‘湯罐(탕관), ‘鑪器(유기), ‘沙鉢(사발), ‘甕(독), ‘焙籠(배롱), ‘炙鐵(적쇠), ‘炙串(적곶: 적꼬치),<sup>49)</sup> ‘名啣筆匣(명함필갑), ‘單衾(홀이불), ‘按席(안석),<sup>50)</sup> ‘行子(행자: 행주),<sup>51)</sup> ‘灯心’(=燈心: 등심), ‘紙灯心’(종이등심), ‘松明(관솔불), ‘斫刀(작두) 등이 사전에 등재되어 있거나 용례가 발견되는 예에 해당하며, 그 외 ‘高子(고자),<sup>52)</sup> ‘寫子(사자)<sup>53)</sup>와 같은 단어의 경우 ‘子’가 ‘도구’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공히 한자어로 통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叉籠(채롱/ 綵籠)이나 ‘洗水(세수/ 洗手), ‘寶兒(보시기/ 甫兒), ‘酒醃子(주전자/ 酒煎子) 등은 사전에 등재된 표기 방식과 약간 다르나 음과 뜻에서 관련성을 갖고 있어 통용되었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예다.

마지막으로 한어 표제어 ‘壘子’와 『역어유해』의 ‘항’에 해당하는 항목은 ‘항’이라는 음과 ‘항아리’라는 뜻을 갖는 한자를 조자(造字)하여 적은 것으

47) 印刀: 통용되는 한자어인 ‘인’과 표기가 유사하다.

48) ‘爐口(노+구)와 ‘火巢(불+소=부싯깃)도 유사하게 음차에 기운 것 같지만 선택한 한자 ‘爐(화로)와 ‘巢(둥지) 등이 노구술이라는 부싯깃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견강부회 식으로나마 연결되어 있다. 한편 ‘爐口’와 ‘火巢’는 본문에 기재된 것과는 별도의 의미로 통용되는 한자 어이기도 하다.

49) 炙串: 박세채의 『남계집』 권55 『酌定祭饌圖說』의 “炙串之只一, 切肉” 참조.

50) 按席: 정약용의 『목민심서』 「奉公」 중 “隱蒙俗名按席”에 같은 용례가 보인다.

51) 行子: 『가례도감의궤영조정순왕후』 「一房儀軌」 중 “行子布裳”에 용례가 보인다.

52) 高子: 고유어 ‘술고조’로 표기된 이 어휘는 한어 표제어인 ‘酒樽’의 뜻으로 미루어보아 ‘고조’와 친연성을 갖는다고 여겨진다. ‘고조’는 ‘술, 기름 따위를 짜서 받는 틀’을 의미한다. 위에 인용된 어휘 중 ‘油高子(기름 짜는 고자), ‘高子囊(술고자 주머니) 등에서 같은 표기법이 사용되었다.

53) 寫子: 『표준국어대사전』에 ‘갓이나 탕건 따위의 먼지를 털어 주는 술’을 의미하는 ‘刷子’의 동의어로 ‘사자’가 등재되어 있으나 한자표기는 되어 있지 않다.

로 보인다. 뜻을 나타내는 ‘ㄹ’ (그릇) 위에 음을 나타내는 ‘ㄱ’ (항)을 올려 만든 ‘ㄱ/ㄹ’이라는 글자가 그것이다.<sup>54)</sup>

한어표제어	『흙영』협주	『역어유해』내용
篋籠	竹籠	대테메오다
剪燈	火炎集於	불뿔집다
剔燈	火東擊去	불뿔티다
挑竿	挑挑開	도도개

<표 19> 器具 (나)

여타 분류명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기구 부의 어휘들 중에도 별도로 분류된 것들이 있다. <표19>에 수록된 4개의 어휘인데, 그 중 ‘竹籠’(대+테두리하다), ‘火炎集於’(불뿔+집+어), ‘火東擊去’(불+동+치+거)는 기물명이 아니라 어떤 기물과 관련된 동작을 말하는 것이고, ‘挑挑開’(도+도+개: 돋우개)는 <표18>에 포함시켜도 무방한 기물명에 해당한다. 전자의 경우 내용면에서 <표18>에 수록된 것과 구분했고, 후자의 경우는 누락된 것을 추후 부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 (11) 안바(鞍轡)

한어표제어	『흙영』협주	『역어유해』내용	한어표제어	『흙영』협주	『역어유해』내용
攀胸	馬胸巨里	가슴거리	鎧靴皮	鎧皮	등피
轡頭	屈來	굴래	鞭穗	叉闊	채열
接絡	革	혁	馬護衣	三丁	삼덩
肚帶	腹帶	빛대	馬脚匙	多曷 一云馬釘子	다갈
鞍塔兒	鞍匣	안갑	馬樁子	馬係木	말말독

<표 20> 鞍轡 (가)

鞍轡 부에서는 말을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물명을 수습했다. 음차를 한 예로 ‘屈來’(굴+래: 굴래), ‘叉闊’(차+열: 챗열), ‘多曷’(다+갈:

54) 황윤석의 『이재난고』 권25의 『華音方言字義解』에서는 “東俗所云단지, 卽墾子也”라 하여 ‘墾子’에 해당하는 고유어를 ‘단지’로 보았다.

다갈) 등이 있고 훈차와 음차를 혼용한 예로 ‘馬胸巨里’(말+가슴+거리: 말 가슴걸이) 등이 있다. ‘馬係木’(말+매는+나무)과 같은 것은 ‘말말뚝’(말말뚝)에 대한 설명이 될 만한 말을 조선어 어순에 따라 쓴 것이다. 통용되는 한자어로는 ‘革’(혁), ‘腹帶’(배대), ‘鞍匣’(안갑), ‘三丁’(삼정)<sup>55)</sup> 등이 있으며, ‘등피’를 표기한 ‘鎧皮’는 한어 표제어 ‘鎧靴皮’나 관련어 ‘鎧子’와의 유사성으로 인해 통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한자어다.

한어표제어	『흠영』협주	『역어유해』내용
馬鞍騎	徒背騎	민등에 타다

<표 21> 鞍轡 (나)

<표21>의 ‘徒背騎’(맨+등+타다)는 ‘민등에 타다’를 조선어 어순에 따라 한자로 쓴 것인데,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므로 <표20>에 수습된 어휘와 구분되어 뒤에 수록됐다.

한어표제어	『흠영』협주	『역어유해』내용
纜	돛索	돛줄
舵	雉	치
槽	舟底것關木	비밧터것는나모
槳	舟旁전關木	비겨터것는나모
篙子	沙化大 又撐子	上全(사화대)
桅篷	舟席	빛돛
桅竿	帆竹	빛돛대
車箱	車欄干	술윗난간

<표 22> 舟船·車輛 (가)

## (12) 주선(舟船)·차량(車輛)

주선(舟船) 부에서 선박과 관련된 물명 7건, 차량(車輛) 부에서 수레와 관련된 물명 1건이 수습되었다. ‘雉’(치: 키)와 ‘沙化大’(사+화+대: 상앗대)는 음차에 해당된다. ‘돛索’(돛+줄), ‘舟席’(배+돛), ‘帆竹’(배돛+대)은 훈차에 해

55) 三丁: 이의현의 『경자연행잡지』 중 “我國則必以馬衣卽所謂三丁覆背, 而燕中則放置郊場” 참조.

당되며, ‘車欄干’(수레+난간)은 통용되는 한자어인 ‘난간’을 훈차에 조합했다. ‘舟底것蘭木’과 ‘舟旁전蘭木’은 ‘빗밧티것는나모’와 ‘빗겨티것는나모’를 다른 방식으로 썼는데, 주로 한자의 뜻을 빌어 조선어 어순에 따라 번역하되 ‘는’을 ‘蘭’으로 음차표기했다.

한어표제어	『흙영』협주	『역어유해』내용
掛蓬	懸帆	빗돛드다
卸蓬	下帆	빗돛디오다
船頭	里勿	빗니물
船梢	古勿	빗고물
開洋	舟放順風	비順風으로돛타
划船	舟것	빗것다
暈船	水疾	빗멀피흐다

<표 23> 舟船 (나)

<표23>에 수록된 어휘들은 주로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동사를 수습하고 있다는 점에서 <표22>에 수록된 것과 구분된다. ‘懸帆’과 ‘下帆’은 ‘빗돛드다’와 ‘빗돛디오다’를 한어 어순에 따라 번역한 것이고, 舟放順風은 ‘비 順風으로 돛타’를 조선어 어순에 따라 한자로 적은 것이다. ‘빗것다’에 대해서는 ‘舟것’이라 하여 ‘-다’라는 어미를 적지 않았다. ‘빗멀피흐다’에 해당하는 ‘水疾’은 통용되는 한자어다. 한편 배의 일부분을 가리키는 말을 음차 표기한 ‘里勿’(이+물)과 ‘古勿’(고+물)은 <표22>에서 누락된 것을 보충한다고 보아야 할 듯하다.

(13) 기희(技戲)

한어표제어	『흙영』협주	『역어유해』내용	한어표제어	『흙영』협주	『역어유해』내용
摔校	角力	실흙흐다	躡軟索	索於罽	줄어흙흐다
放鶴兒	放鷺	연놀리다	上竿	躡竿戲	윗대노릇
踢毬子	踢毬	더기춌다	打象碁	將棋	장기두다
耍指兒	工棋戲	공기노다	下籠棋	追沙兒	추사으흐다
鬼臉兒	優伶	광대	懸扯的	空中더워伊	※찾지 못함

<표 24> 技戲

기희(技戲) 부에서는 공연 및 놀이와 관련된 어휘를 수습했다. ‘角力’(씨름), ‘放鳶’(연날리기), ‘踢毬’(제기차기),<sup>56)</sup> ‘優伶’(광대), ‘將棋’(장기) 등 통용되는 한자어를 다수 사용했으며, ‘工棋戲’(공기놀이)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법한 표기법으로 보인다. ‘索於름’(줄+어+름)이나 ‘嘯竿戲’(소+대+놀이: 솟대놀이)는 음차와 혼차를 혼용했고, ‘追沙兒’(추+사+아: 주사위)는 음차를 따른 표기이다.

마지막에 수록된 ‘空中더워伊’는 기존의 『역어유해』나 『역어유해보』(譯語類解補)의 ‘技戲’ 항목에서 찾지 못한 어휘이다. 한어 표제어인 ‘懸扯의’ 역시 의미가 자세하지 않다. ‘空中더워伊’는 혹 ‘공중제비’라는 말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으나 후고를 요한다.

#### (14) 쇠설(瑣說)

‘瑣說’에 해당하는 어휘들은, 『역어유해』의 순서와 동일하게 가장 마지막에 수록됐다. 이는 물명이라기보다는 한어의 관용어에 해당하는 표현들이며, 그런 점에서 이상의 목록에 수록된 어휘와는 성격을 달리 한다. 즉 앞서의 목록에서는, 특정한 한어 표제어가 고유어로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편자의 관심이 기울어 있었다면 이하의 어휘군에 대해서는 한어 표제어의 의미를 파악하고 익히는 데 주안점이 두어져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해당 표제어에 대한 고유어 설명 내용을 음차로 표기한 예는 적고, 표제어의 뜻을 한자어로 적거나 한문으로 서술한 예가 압도적으로 많다.

한어표제어	『흙영』협주	『역어유해』내용	한어표제어	『흙영』협주	『역어유해』내용
程儀	行人扶助	길가는데 부조하다	喫了乾	盡食	다먹다
口穩	不爲雜言	잡말아니타	耍過的	經人女	經人女
喫哄	被人欺賺	소금을넘다	不打緊	不關係	관계타아니타
喫虧	被冤	설음을넘다	緊勾當	急事	急흔일
細作	間諜之人 俗稱造伊	間諜之人 俗稱조이	走了氣	김出	김나다
爭嘴	鬪釘	투정하다	猛可裡	不意	블의에

56) 踢毬: 노수신(盧守愼)의 『소재집』(蘇齋集) 『童蒙須知』 중 “如賭博,籠養打毬,踢毬,放風禽等” 참조.

弔死	縊	목미야죽다	不理他	彼不爲記數	더들기수티아니 타
踏空	踐虛方	허방드디다	這站箇	今番或是處	이번 ○或云여기서
氣死	애써死	애써죽다	那站箇	去番或其處	그번 ○或云거기서
爭風	爭婦	계집드토논새움	差不多兒	不多違	여기기만티아니 흐다
喫醋	爭夫	남진드토논새움	你管他麼	于汝何知	네아롱곳가
好生	加吐	ㅁ장	影影知道	朦朧知道	어렵프시아다
打聽	똥寶牙	똥부다	順風打旗	視他所爲依而爲之	넵흔는대로보와 가며흐다
妙高	加吐高	ㅁ장놈다	黑裡蔓蔓	吃伊孟堂	호리몽든흐다
急且	果桀里	과걸리	沒油水的	油氣无件	기름되업슨것
大造化	多使望	스망만타	這箇去處	是處	이곳
儘一儘	支奇於	지기우다			

## &lt;표 25&gt; 瑣說

‘不爲雜言’(잡말을 하지 않다), ‘被人欺賺’(남에게 속임을 입다), ‘被冤’(설움을 입다), ‘間諜之人’(간첩인 사람), ‘縊’(목매 죽다), ‘盡食’(다 먹다) ‘經人女’, ‘不關係’(관계하지 않다), ‘急事’(급한 일), ‘不意’, ‘今番或是處’(이번 혹은 여기), ‘去番或其處’(저번 혹은 거기), ‘于汝何知’(네가 알아 무엇 하리), ‘朦朧知道’(몽롱하게 알다), ‘視他所爲依而爲之’(그가 하는 것을 보고 따라서 하다), ‘是處’(이곳), ‘爭婦’(아내를 다투다), ‘爭夫’(남편을 다투다), ‘不多違’(많이 어기지 않다) 등은 대체로 『역어유해』의 고유어 표기 내용을 한어의 어순에 준하여 번역한 것에 해당된다. 반면 ‘行人扶助’(길 가는 사람을 돕다), ‘김出’(김나다), ‘彼不爲記數’(저를 기수하지 않다), ‘油氣无件’(기름기 없는 것) 등은 조선어 문법이 개입한 예다. 이렇게 한어 혹은 조선식 한문을 이용해 관용어의 뜻을 설명한 것이 ‘쇄설’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에 비해 ‘造伊’(조+이), 鬪釘(투+정),<sup>57)</sup> ‘加壯’(가+장), ‘똥寶牙’(똥+보+아),<sup>58)</sup> ‘果桀里’(과+걸+리),<sup>59)</sup> ‘支奇於’(지+기+어), ‘吃伊孟堂’(흘+이+맹+당)

57) 鬪釘: 유만주는 ‘반찬투정’ 등에 해당되는 ‘투정’을 이렇게 표기했다. 그러나 통용되는 한자어 ‘鬪釘’은 ‘동물과 화초 모양으로 만든 오색 떡을 높이 끼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이익(李瀾)의 『성호전집』 권21 『送李應鼎序』의 “無一事非博士家技倆, 而甚者或鬪釘砥餅, 未肯知休” 참조.

등 음차에 해당하는 예라든가, ‘加壯高’(가+장+높다), ‘多使望’(많다+사+망) 등 음차와 훈차가 혼용된 예는 그리 많지 않다.

유만주는 『속어명물해』를 완성한 후 “이는 모두 중원의 속간(俗間)에서 쓰이는 말이다. 나는 소설 가운데서 이런 말을 많이 보았다”<sup>60)</sup>고 적었는데, 이는 대체로 『瑣說』 부의 한어 표제어에 해당되는 논평이 아닌가 한다. 평소 즐겨 읽던 중국소설에서<sup>61)</sup> 보았던 백화(白話) 표현을 ‘쇄설’에서 확인하고 정리하게 된 것이다.

그는 앞서의 물명을 다룰 때에는 달리 한어를 학습하는 차원에서 ‘쇄설’을 검토하고 목록으로 만들었으며, 이후 한문으로 글을 쓸 때 참조할 만한 어휘군으로 삼았다. 예컨대 <표 25>에 인용된 어휘 중 ‘설음을 입다’라는 뜻의 ‘喫虧’라는 한어를 유만주는 자신의 내면상태를 표현할 때 종종 사용했다.<sup>62)</sup>

### III. 『속어명물해』의 체재와 표기법이 갖는 의미

유만주가 엮은 『속어명물해』는 『역어유해』에 수록된 어휘를 선별하고 재구성하여 이루어진바, 저본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역어유해』는 상하 2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天文’ 이하 62제(題)의 분류에 따라 모두 4,690건의 한어 표제어가 수록되어 있다. 분류명의 수는 상책이 43건이고 하책이 19건이지만 분량은 서로 비슷하다.<sup>63)</sup> 하책의 경우

58) 寔寶牙: 이 말은 ‘듣보다’와 관련이 있다. ‘듣보다’는 ‘찾거나 구하느라고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면서 알아보다’라는 뜻이며, 해당되는 한어 표제어인 ‘打聽’은 ‘물어보다, 알아보다’라는 뜻이다.

59) 果桀里: 이 말의 의미는 자세하지 않다. 한어 표제어인 ‘急且’는 ‘倉卒, 倉促’이라는 뜻이다.

60) “此皆中原俗間用語, 余多見之小說中.”(1781.7.2)

61) 김하라, 『유만주의 『수호전』 독법』, 『한국한문학회』 48, 한국한문학회, 2011) 참조.

62) ○喫虧喫虧! 能爲他人所爲之事以接之; 乃不能爲他人所爲之事以承之, 豈非喫虧?(1783.6.4)

63) 상책은 69면이고 하책은 54면으로, 상책이 15면 더 많다. 또한 각 책에 수록된 어휘 수는 상책이 2,624건이고 하책이 2,066건이다. 하나의 소제목 아래 분류·수록된 어휘수의 평균으로 보자면 상책이 48건인데 비해 하책이 약 109건인바 압도적으로 많다. 『역어유해』의 체재와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동, 『近代國語 語彙集 研究: 類解類 譯學書를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참조.

한 분류명 아래 수렴된 표제어의 수가 더 많기 때문이다. 내용상으로는 상책이 특정한 사회적 상황에 관련된 용어를 수렴한 반면, 하책은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사물 명칭에 집중된 편이다. 두 책을 비교하자면, 상책은 회화 교재로서의 용도에 기울어 있으며, 하책은 어휘집으로서의 속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역어유해』를 바탕으로 추출한 목록인 『속어명물해』에는 오직 하책에 수록된 어휘 2,066건의 일부에 해당하는 392건의 한어 표제어가 ‘大米’로부터 ‘這箇去處’까지 죽 나열되어 있다. 아마도 편자가 상책을 입수하지 못한 때문인 듯하다. 그렇긴 하나 어휘집으로서의 성격을 더 강하게 띠는 『역어유해』의 하책은 이미 사물 명칭에 관심을 두고 있던 편자에게 비교적 적합한 자료가 되었다. 유만주가 목록에 붙인 제목 ‘속어명물해’ 역시 물명을 수습하고자 하는 본래 의도를 보여주며 그 결과가 된 내용과 조응한다.

한편 『역어유해』 하책은 ‘(1)珍寶 (2)蠶桑 (3)織造 (4)裁縫 (5)田農 (6)禾穀 (7)菜蔬 (8)器具 (9)鞍轡 (10)舟船 (11)車輛 (12)技戲 (13)飛禽 (14)走獸 (15)昆蟲 (16)水族 (17)花草 (18)樹木 (19)瑣說’의 순으로 구성된다. 잠상과 직조, 재봉 등 의생활과 관련된 분류명이나, 안비와 주선, 차량 등 교통수단과 관련된 분류명을 연달아 배열한 데서 비슷한 속성을 갖는 것끼리 모아 놓으려는 의도까지는 발견할 수 있지만 전체를 관통하는 구도를 찾기란 어렵다.

이에 비해 『속어명물해』는 그보다 좀 더 정교한 의도에 따라 단어를 배열한 것으로 보인다. 편자가 분류 명칭을 부여한 것은 아니지만 그가 어휘를 나열한 순서를 쫓아가며 추측해 보자면 다음 도식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 I. 생물

### ① 식물명

- ① 禾穀(가)-곡식(16건)
- ② 菜蔬(가)-나물(33건)
- ③ 樹木-나무(17건)
- ④ 花草-꽃(19건)

### ② 동물명

- ① 飛禽(가)-날짐승(24건)
- ② 走獸(가)-걸짐승(23건)

- ③ 昆蟲-벌레(곤충, 절지동물, 양서류, 파충류 포함 22건)
- ④ 水族(가)-수생동물(38건)
- ③ 생물 관련 어휘
  - ① 水族(나)-수족의 생태, 생선 부위 및 조리법(5건)
  - ② 飛禽(나)-닭 생태, 닭 부위 및 조리법(13건)
  - ③ 菜蔬(나)-나물채취 및 조리법(3건)

## II. 무생물

### ① 각종 물건 이름

- ① 珍寶-보석(2건)
- ② 織造-직조도구(1건)
- ③ 裁縫-의복제작 관련(5건)
- ④ 田農-농기구(4건)
- ⑤ 器具(가)-일상생활용품(77건)
- ⑥ 鞍轡(가)-승마 관련 도구(10건)
- ⑦ 飛禽(다)-매사냥 관련 도구(2건)
- ⑧ 舟船(가)-선박의 각 부분(7건)
- ⑨ 車輛-수레의 한 부분(1건)

### ② 기타 관련 어휘

- ① 禾穀(나)-곡식의 속성을 나타내는 접두어, 식용이 아닌 부분(5건)
- ② 蠶桑-양잠 관련 동사 및 명사(2건)
- ③ 田農(나)-농업 관련 동사(3건)
- ④ 器具(나)-생활용품 관련 동사 및 누락된 명사(4건)
- ⑤ 走獸(나)-길짐승 중 말 관련 동사 및 명사(5건)
- ⑥ 飛禽(라)-날짐승 중 매 관련 동사(1건)
- ⑦ 鞍轡(나)-승마 관련 동사(1건)
- ⑧ 舟船(나)-선박 관련 동사 및 누락된 명사(7건)

## III. 무형의 문화: 민속과 언어

- ① 技戲-놀이 관련 명사 및 동사(10건)
- ② 瑣說-한어 속어(33건)

위에 제시한 바와 같이 『속어명물해』는 비교적 일관된 원칙에 따라 저본

의 편차를 완전히 재구성하여 이루어진 어휘집이며 수록한 단어는 명사, 즉 사물의 명칭에 집중된 경향을 보인다. 새로운 서열과 분류 기준을 적용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이는 이와 같은 현상은, 편자의 세계관과 요구에 맞는 어휘집을 엮으려는 시도의 일단이라 해석할 수 있다.

편자 유만주는 우선 사물의 명칭을 생물과 무생물이라는 범주로 나누어 보았던 듯하다. 생물은 식물과 동물로 다시 나뉘는데, 전자에 곡식과 채소, 수목, 화초가 포함되고, 후자에 날짐승과 길짐승, 곤충 및 수족(水族)이 포함된다. 생물에 속한 어휘들로는 편자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들이 주를 이루는데, 특히 식재료가 되는 동식물이 주의 깊게 선택되는 경향을 보인다. I-③에 재분류된 생물 관련 어휘들은 생물의 명칭은 아니지만 인간의 식생활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맥락이 닿으며, 편자가 크게 보아 인간의 일상생활이라는 차원에서 각종 물명을 분류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I의 생물 명칭이 인간의 문화와 관련을 맺고 있는 자연의 물명을 분류한 결과라면, II의 무생물 명칭은 의복의 제작, 농사, 일상생활의 도구, 교통수단 등 인간의 물질문명과 관련된 것들에 수렴한다. 대체로 II에 분류된 어휘는 인간이 사용한 도구에 해당하지만, II-②는 목록을 만들다가 누락한 것을 보충하여 기재한 어휘라든가, 명사가 아닌 동사이므로 물명의 목록에 포함시키기 곤란한 것 등을 일부 포함하고 있어 정교하게 범주화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민속놀이와 관용 어구를 별도로 모은 III의 범주를 통해 『속어명물해』에서 어휘를 분류한 의도가 좀 더 명확해지게 된다. 민속과 언어를 다룬 이 범주는, 편자가 생물과 무생물, 자연과 인간문명의 대조라는 측면에서가 아니라 ‘문화’라는 개념을 상위에 두고 어휘를 분류했다고 추정할 여지를 준다. 즉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문화’가 하나의 상위개념으로서 『속어명물해』의 각종 어휘를 관통하며, 그 아래 ①인간 생활과 관련된 생물 및 ②무생물 이면서 인간 생활에 쓰이는 도구가 ‘물질문명’이라는 같은 범주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는 만질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민속이나 언어와 같은 무형의 문화와 대비된다. 이에 『속어명물해』는 인간의 문화와 관련된 사물의 명칭을 유형과 무형의 것으로 나누어 분류한 목록이 되는 것이다. 다만 분량 상으로 보았을 때 편자는 인간의 일상을 구성하는 사물과 도구 등 만질 수 있

는 것에 더욱 압도적인 관심을 표하고 있으며, 이런 까닭에 『속어명물해』는 18세기 조선 서울의 한 20대 남성의 일상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물들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단서를 마련해 준다.

위에서 제시한 체재와 아울러 『속어명물해』가 그 저본인 『역어유해』와 가장 눈에 띄게 다른 점은, 표제어에 해당하는 한어 어휘에 딸린 협주를 표기하는 방식이다. 주지하듯 『역어유해』에서의 고유어 표기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되어 있다. 그러나 『속어명물해』의 경우 반대로 몇몇 예를 제외하고는 한자로 해당 항목을 표기했다. 『속어명물해』의 표기법은 크게 보아 한자를 이용한 음차와 훈차, 한글표기로 구분된다. 셋 중 한 가지 표기방식을 따른 경우도 있지만 각각의 표기방식이 혼용된 경우가 많다.

『속어명물해』 가운데 한글표기를 한 번이라도 사용하여 표기한 예는 전체 392건 가운데 63건에 불과하므로, 한글 표기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글 표기가 사용된 항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譯語類解	欽英		譯語類解	欽英		譯語類解	欽英
1	피	피	22	덜녕이논말	덜能而논馬	43	얼명이	얼명伊
2	우윙	牛嬴	23	더떨개	더八狗	44	김چه	김籬
3	피가지	피茄支	24	두더쥐	斗더鼠	45	드레	드레
4	도랏	途랏	25	슌	슌	46	시르	是르
5	더덕	더德	26	혀	혀	47	섬	섬
6	마늘씩다	씩	27	벼룩	벼象	48	메	메
7	늑물테티다	테치	28	닥장벌레	닥將伐患	49	삿	삿
8	르릅나모	르릅木	29	릿도기	릿徒其	50	쓸	쓸
9	느퉁나모	느퉁木	30	거머리	去머리	51	비뵤	非뵤
10	무프레	无프레	31	머구리	머久리	52	활비뵤	弓非뵤
11	빨리	빨而	32	쉬	쉬	53	돛바늘	돛針
12	부들	付들	33	머유기	머有其	54	달줄	달索
13	빨기	빨其	34	늦티	늦致	55	빅밧티것는나모	舟底것蘭木
14	비들기	非들其	35	밧그리	밧奇里	56	빅겨티것는나모	舟旁것蘭木
15	옷밤이	옷밤而	36	加里맛	加里맛	57	빅것다	舟것
16	법새	법雀	37	새오진것	沙午진것	58	실혀다	혀
17	듭삿다	뿏어	38	번디	번大	59	줄어름혀다	索於름
18	듭튀혀다	튀	39	골흙	골흙	60	※찾지 못함	空中더워伊

19	거티는말	去馳는馬	40	밭두들	田斗들	61	애뼈죽다	애뼈死
20	들피딘말	들霸眞馬	41	모음기다	移모	62	뎡부다	뎡寶牙
21	쁜말	쁜馬	42	고기굽논섯쇠	炙肉섯鐵	63	감나다	감出

&lt;표 26&gt; 「俗語名物解」의 한글 표기

<표26>에 의거하여 『속어명물해』에서 한글로 표기된 음절을 추출하면 어떤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앞서 부분적으로 논의했거니와, ‘되’, ‘왕’, ‘랏’, ‘더’, ‘ㅅ’, ‘데’, ‘르’, ‘느’, ‘티’, ‘프’, ‘레’, ‘빨’, ‘들’, ‘뺨’, ‘웃’, ‘밤’, ‘뱀’, ‘뽕’, ‘튀’, ‘논’, ‘덜’, ‘슌’, ‘혀’, ‘벼’, ‘닥’, ‘뽕’, ‘머’, ‘쉬’, ‘늣’, ‘밋’, ‘맛’, ‘짚’, ‘것’, ‘브’, ‘흙’, ‘뽕’, ‘섯’, ‘명’, ‘깁’, ‘드’, ‘르’, ‘섞’, ‘메’, ‘뎡’, ‘닷’, ‘삿’, ‘쌀’, ‘뵤’, ‘웁’, ‘뼈’, ‘뎡’, ‘것’, ‘것’ 등 『속어명물해』에서 한글로 표기된 음절은 한자의 음과 뜻을 빌어 표기하기에 곤란한 것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치’, ‘름’, ‘모’, ‘깁’, ‘애’, ‘얼’ 등 한자음을 빌어 표기할 수 있는데도 한글로 쓴 예는 그에 비해 현저히 적다. 한자를 이용한 음차표기가 어렵다고 여겨질 경우에만 한글을 이용한 표기를 선택한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이처럼 불가피할 경우에만 한글을 사용했을 뿐 거의 전적으로 한문과 한자를 사용하여 고유어 어휘의 목록을 만든 것은 한글을 전용하는 오늘날의 시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18세기 조선의 양반 계층 남성인 유만주는 자신에게 익숙한 문자인 한자를 사용하여 고유어에 대한 학문적 접근을 한 것일 뿐, 그를 언어적 모화주의자로 간주해서는 곤란할 듯하다. 애초에 그는 구어와 문어 모두에 대한 감각이 예민하다고 할 수 있는 문인이었으나, 『역어유해』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구어인 고유어에 대한 그의 자의식은 더 구체적인 형태로 발현되고 있었다.

○신라 시조는 처음에 국호를 ‘서라벌’이라 했고, 또는 ‘서벌’이라고도 했다. 그래서 속훈(俗訓)에서 ‘京’자를 ‘서벌’이라 하는 것이다. 유리왕 때 잇금(齒理)이 많은 이를 왕으로 세우고 ‘이사금’이라 했으며 혹은 ‘이질금(尼叱今)이라 했다. 그래서 속훈에서 ‘王’자를 ‘이질금’이라 하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보면 오늘날의 방언이 비록 이치가 없다 하더라도 모두 원위(源委: 본말. 여기서는 어원)가 있어 찾아볼 만하니, 우리나라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sup>64)</sup> (유

64) ○新羅始祖初國號徐羅伐, 又云徐伐, 故俗訓京字曰“徐伐”以此. 及齒理以齒理多立以爲君, 號

만주, 30세)

이처럼 그는 자국의 문헌을 읽으며 신라시대의 언어가 조선시대까지 지속되고 있는 예를 발견하고 고유어의 어원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으며,

○중국에는 본래 우리나라 언문에 있는 ‘미음’음이 없다. 우리나라의 ‘미음’을 중국 음에서 모두 ‘니은’으로 발음한다. 우리나라 사람이 일찍이 중국인에게 ‘미음’을 발음해보게 하였지만 끝내 되지 않았다. 대개 ‘미음’은 육합(六合) 안팎 어디에도 없으며 오직 조선 음이다.<sup>65)</sup>(유만주, 30세)

라 하여 중국어와 조선어의 음운체계가 다른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중국 사람이 끝내 발음하지 못한다는 ‘미음’이란 문맥상 종성인 ‘ㄱ’을 가리킨다. 종성 ‘ㄱ’이 조선에만 있다는 인식은 교정을 필요로 하지만 18세기 중국어의 종성에 ‘m’ 발음이 없다는 지적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인바,<sup>66)</sup> 적어도 중국어와 조선어의 음운 차이에 대해서는 면밀히 파악하고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유만주는 『역어유해』를 검토하여 목록을 만들고, 한자의 음과 뜻, 한글을 혼용하여 고유어를 표기하면서 한문과 한글의 이질성을 구체적으로 발견하게 되었다. 그는 한문으로 표기하기 어려운 한글 음운을 선별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한문과 한글이 음운체계에서 상당히 다르다는 자각과 연결되었다. 그는 자국의 고유어에 대한 학문적 문제의식을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갔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조선의 사대부 지식인으로서 한문을 전적으로 사용하는 유만주가 역관(譯官)의 수험서인 『역어유해』를 검토하며 얻게 된 효과 중 하나였다.

尼師今, 又云尼叱今, 故俗訓王字曰‘尼叱今’以此. 推是則今之方言, 雖以無理而咸有源委可徵, 生於東土者, 亦不容疎而忽之也.(1784.8.18)

65) ○中土本無東方諺文中미음一音, 東音之미음, 華音皆作니은呼. 東人嘗令漢人口作미음音, 終不能成. 蓋미음一音, 六合內外他無之, 惟鮮音而已.(1784.9.12)

66) 閉口韻의 /m/ 韻尾가 /n/ 운미와 혼동되기 시작한 것은 宋代부터이며, 16세기에 이르러 중국어의 /-m/운은 북음계통에서 마침내 소실되고 /-n/운에 합류했다. 이제돈, 『中國 近世官話의 音韻 演變 研究』(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74~76면 참조.

## 참고문헌

### 1. 자료

유만주, 『欽英』(영인본), 서울대학교규장각, 1997.

서울대학교규장각 편, 『譯語類解: 譯語類解補』(영인본), 서울대학교규장각, 2005.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main.jsp>)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

### 2. 논저

김종원, 『한국 식물 생태 보감』, 자연과생태, 2013.

김하라, 『통원 유만주의 한글 사용에 대한 일고』, 『국문학연구』 26, 국문학회, 2012, 199~243면.

\_\_\_\_\_, 『유만주의 『수호전』 독법』, 『한국한문학회연구』 48, 한국한문학회, 2011, 391~434면.

신중진, 『『연경재전집』에 실린 <稻 벼> 곡물명에 대한 어휘사적 연구』, 『동아시아문화연구』 52,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2, 83~118면.

연구동, 『近代國語 語彙集 研究: 類解類 譯學書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6.

이건식, 『李圭景의 名物度數之學과 관련된 언어와 문자 자료에 대하여』, 『진단학보』 121, 진단학회, 2014, 141~176면.

이재돈, 『中國 近世官話의 音韻 演變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Yu Manju's Reading and Reorganization of *Yeokeoyulhae*

Kim, Ha-Ra

Yu Manju 俞晚柱, a surplus intellectual of Joseon, read *Yeokeoyulhae* 譯語類解 and extracted to make a list “Sogemyeongmulhae” 俗語名物解 in the late 18th century. “Sogeo” means local language, ‘Korean’ in this case, and “myeongmulhae” means explanations of name of objects. Unlike *Yeokeoyulhae*, a Chinese vocabulary dictionary for middle layer Korean translators, the list is a lexicon of 392 names of things organizing Yu Manju’s everyday life. He changed the contents of the book like this: ① grains, vegetables, trees, flowers, birds, four-footed animals, insects and bugs, aquatic animals, ② jewelry, weaving, sewing, agriculture, living tools, harness and saddle, ship, vehicle, sericulture, ③ folk play, idiom. From this, we can find a viewpoint that divides material culture and intangible culture and a perspective that divides the material culture into natural product useful to humans and artificial tools for everyday life.

*Yeokeoyulhae* is described in Chinese-Korean transliteration pairs system. Chinese headwords is transcribed in Chinese character and Korean meanings in Hangul. But Yu Manju used Hangul in a limited way to write Korean meaning. In his transcription system, he mainly depended on Chinese characters instead of Hangul. This transcription of borrowed characters was common to intellectuals who mainly use Chinese characters at the time. He transcribed only 63 descriptive Korean words in Hangul. These 63 words contain phonemes that were difficult to be written in Chinese. He confirmed that Korean and Chinese were different in the process of selecting phonemes that are difficult to be represented in Chinese. This was an opportunity for him to conduct an academic review of his native language in the future.

keywords: *Yeokeoyulhae* 譯語類解, Yu Manju 俞晚柱, *Sogemyeongmulhae* 俗語名物解, Chinese, Hangul.

접수일자: 2017. 3. 31.

심사기간: 2017. 3. 31. ~ 2017. 5. 10.

게재결정: 2017. 5. 10.

